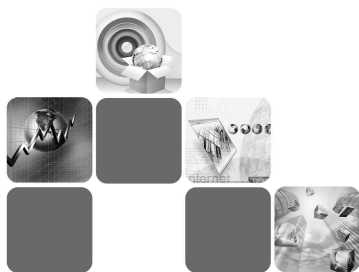


2019-7호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30

1. 미국 - 음향 액세서리(무선 이어폰) 31
2. PCB 34
3. Ex-Briefing 38

III. 부록 42

1. ICT 생산 통계 43
2. 2019년 6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4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1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7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58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19.6월 ICT 수출은 148.3억 달러(△22.4%), 수입 85.5억 달러(△0.9%)를 기록
- (수출)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2.4% 감소돼 8개월 연속 하락('18.11월 △1.7%→'19.1월 △18.2%→4월 △10.8→ 6월 △22.4)
 - 품목별로는 D-TV가 급증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홍콩포함)·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감소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84.1 (△25.3)	15.9 (△26.6)	9.9 (△22.6)	3.3 (238.0)	6.9 (△41.8)	148.3 (△22.4)
중국(홍콩)	53.3 (△32.3)	9.1 (△28.0)	1.7 (△39.8)	0.3 (225.7)	2.8 (△45.9)	74.1 (△31.8)
미국	5.3 (△9.2)	0.2 (19.3)	3.5 (△30.9)	0.1 (△13.5)	1.8 (△44.0)	15.4 (△19.0)
일본	1.1 (△21.8)	0.3 (125.4)	0.1 (△67.6)	0.1 (△9.2)	0.2 (△25.2)	3.4 (△11.0)
EU	1.8 (△24.4)	0.5 (△49.4)	1.1 (△8.6)	0.4 (418.8)	0.9 (△27.5)	9.1 (△12.0)
베트남	9.1 (20.6)	4.7 (△10.1)	2.1 (2.1)	0.3 (723.5)	0.1 (0.6)	20.2 (7.7)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대비 0.9% 감소한 8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기록
 - 반도체(39.2억 달러, 10.0%↑), 휴대폰(6.5억 달러, 0.4%↑)이 늘어났으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7.5억 달러, △26.4%), 디스플레이(3.0억 달러, △54.2%) 등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소폭 하락
- (무역수지) 중국(홍콩포함, 42.6억 달러)·베트남(13.4억 달러)·미국(9.0억 달러)·EU(3.9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62.8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19년		2018년	
		6월P	상반기P	6월	상반기
수출	전체 산업	441.8 (△13.5)	2,715.5 (△8.5)	510.8 (△0.4)	2,966.7 (6.3)
	ICT	148.3 (△22.4)	872.7 (△18.4)	191.2 (20.3)	1,069.5 (17.7)
수입	전체 산업	400.1 (△11.1)	2,520.0 (△5.1)	450.0 (11.0)	2,655.8 (13.4)
	ICT	85.5 (△0.9)	536.1 (2.6)	86.3 (△2.9)	522.7 (7.6)
무역수지	전체 산업	41.7	195.5	60.8	310.9
	ICT	62.8	336.6	104.9	546.8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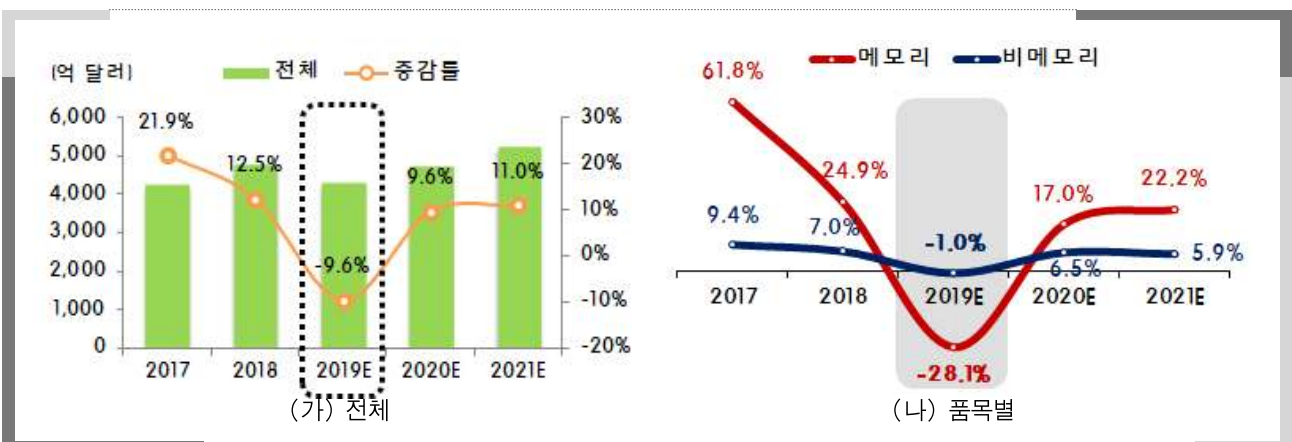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 감소가 전망되면서 국내 업체 실적 개선에 난항 예고

- (시장 전망) '19년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동반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292억 달러($\Delta 9.6\%$)로 역성장이 예측(Gartner, '19.6월)
 - 반도체 시장은 '18년까지 2년간 서버·스마트폰向 수요 증가로 호황을 기록했으나 '18년 하반기 시작된 메모리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 및 수요 정체와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수요는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년 성장이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
 - 메모리(1,171억 달러, $\Delta 28.1\%$)는 전년도 고성장에 대한 기저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미·중 무역 분쟁, 전망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D램($\Delta 31.4\%$)·낸드플래시($\Delta 24.3\%$) 등 주요 품목 수요 부진이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 전망
 - 비메모리(2,441억 달러, $\Delta 1.0\%$)는 5G·AI·IoT무인차 등 신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망산업 부진으로 하락
- (2분기 실적) 국내 업체 실적은 메모리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진 지속
 -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3,000억 원(전년 동기대비 $\Delta 71.6\%$, 잠정)으로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6,376억 원($\Delta 53\%$)으로 1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
 - 최근 몇 년 새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타고 업체들이 생산력을 확대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스마트폰 등 전망 산업 성장 정체, 무역마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메모리 수요가 감소했으며, '18.4분기부터 가격도 하락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

그림 1-1 |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19.6.

□ (가격 추이) D램과 낸드플래시는 서버·모바일 등 수요 부진으로 하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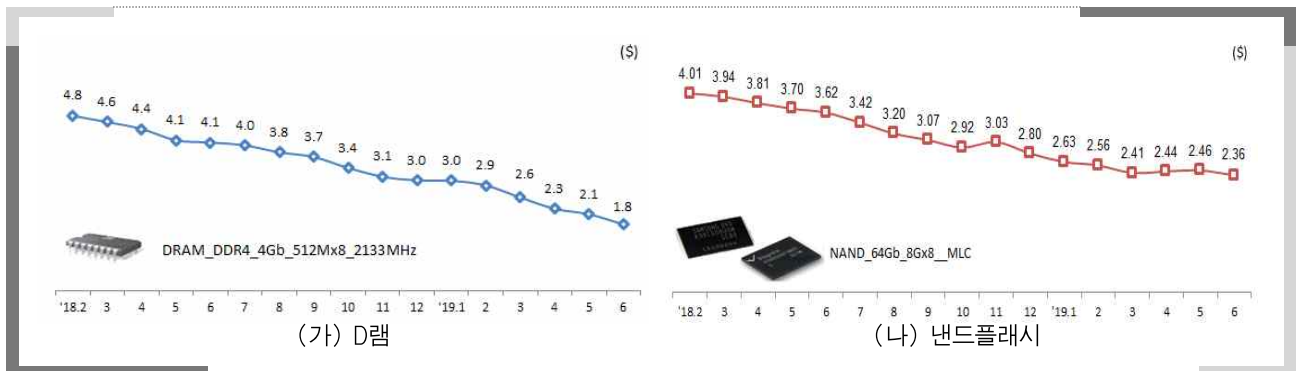
- **(D램)**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따른 높은 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서버 및 PC용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1달러대로 하락

※ D램 공급초과율 추이(% , Gartner, 2019.6.) : ('18→'19) 100.3→103.7, ('19.2Q→3Q) 104.5→102.8

- **(낸드플래시)**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도시바 정전(6.15일), 일본 소재 수출 제재(7.4일)로 인한 재고소진 등으로 공급이 둔화되면서 향후 단가 상승도 전망되는 상황

※ 낸드플래시 공급초과율 추이(% , Gartner, 2019.7.) : ('18→'19) 102.2→103.2, ('19.2Q→3Q) 105.6→100.3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2019.6, 현물가격 기준

□ 일본,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對한 수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제재도 우려

- **(일본 제재)** 일본 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협
 - '19.7.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와 절차를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
 - 이와 관련하여 7.4일부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수출 절차를 강화하며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본격적인 수출 규제²⁾를 시행
 - ※ 에칭가스는 반도체 세정,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의 감광제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에 사용
 - 일본은 한 달간의 의견 수렴을 걸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³⁾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일각에서는 IC·노광장비·CVD·이온주입기·웨이퍼·블랭크마스크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추가 규제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2) 각 거래별로 해당 상품의 실사용자에 대한 전달 여부, 사용 여부,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실사용자의 적절한 통제 및 관리 여부에 대한 심사 진행으로 약 90일 소요될 전망

3) 현재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캐나다·체코·덴마크·핀란드·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 등 27개국



- **(국내 영향)** 수출 규모로는 국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소재 국산화의 필요성 강하게 대두
 - '19.5월 누적 기준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일 수입 규모는 1,660억 원인 반면, 반도체 수출 규모는 45.2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반도체 생산 중단 시 일본보다는 한국 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
 - ※ 對일 수입 규모는 레지스트 1,190억 원, 에칭가스 327억 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39억 원
 - 일본의 주요 규제 대상은 차세대 노광장비 EUV용 레지스트로 현재 국내 업체가 활용하는 제품과 달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제재가 지속될 경우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국내업체의 EUV 공정 도입⁴⁾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 ※ 국내 업체는 D램-ArF 액침(Immersion) 노광장비용, 3D 낸드-KrF 노광장비용 레지스트를 주로 사용
 - 반면 에칭가스의 경우 국내 일부 업체가 생산하고 있지만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는 일본산을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재가 바닥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
 -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소재의 재고를 일정 수준 보유(최장 1분기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단기간 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안이 필요
 - 한편 일본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품목에는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웨이퍼⁵⁾, 블랭크 마스크⁶⁾ 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 품목이 추가 규제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예상
 - ※ '19.하반기 양산될 삼성전자의 7nm EUV 공정 준비를 위해서는 일본 호야의 블랭크 마스크 구매가 필수적인 만큼, 블랭크 마스크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
- **(국내 대응)** 업체 및 정부는 소재 확보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내 소재 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
 - (업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수입,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의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종착지인 '엔드 유저(end user)'를 일일이 확인해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경향비즈, '19.7.27일)
 - 또한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최근 D램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등 중장기적 대응책으로 국내 기업들과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
 - ※ SK머티리얼즈가 연내 샘플 공급을 목표로 불화수소 생산 준비에 돌입(7.24일), '20.상반기 본격 양산이 기대
 - (정부) 한국 정부는 WTO 제소 등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갖고 대응하고, 반도체 중간재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씩 총 6조 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
 - 이번 일본의 규제 사태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어,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

4) 삼성전자는 '19.하반기 7nm 파운드리, '20.하반기 12nm(10나노미터 초반) DRAM에 EUV 공정을 도입할 예정. SK하이닉스는 '18년 말 EUV 전용 공장인 M16 착공 계획을 밝혔으며, '20.10월 완공 예정

5) 웨이퍼는 일본 섬코와 신에츠화학이 전체의 53%를 공급. 그 외 대만 글로벌 웨이퍼(17%)와 독일 실트로닉스(13%), 한국 SK실트론(9%) 순

6) 블랭크 마스크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며, 호야·울코트 등 일본 업체가 과점

표 1-3 |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및 향후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

구분	관련 제품	세부 특징	관련기업	
			일본	한국
1차 규제 대상	불화수소	군용 화학 제제의 원료인 물질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이들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로 하나의 물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30%를 넘는 것(25개 품목 중 불화수소 포함)	스텔라화, 모리타화, 쇼와덴코	솔브레인, 후성, E&E테크놀로지
	레지스트	레지스트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그것을 도포한 기판 15nm이상 193nm미만의 파장의 빛에 최적화된 포지티브형 레지스트 1nm초과 15nm미만의 파장의 빛으로 사용하도록 최적화한 레지스트 - 전자빔, 이온빔용 중 1.01마이크로플롬/mm2 이하 감도를 가지는 것 - 표면 이미징 기술용 레지스트	JSR, 도쿄오기공업, 신에츠화학	동진세미켄, 금호석유화학
	폴리이미드	플루오르 화합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결합 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 이상인 불화폴리이미드 - 결합 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30% 이상인 불화포스파젠의 탄성체	스미토모화학	SKC코오롱PI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반도체 관련 품목	집적회로(IC)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멀티칩 집적회로, 광집적회로, 막형 집적회로, 삼차원 집적회로, 모놀리식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등 -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컴퓨터, 비휘발성 메모리 등	르네사스	삼성전자, DB하이텍, 실리콘웍스
	전력반도체(PMIC)	- 최대 동작 접합부 온도가 215도를 넘게 설계된 것 - 반복 피크 휴지 상태 전압이 300볼트가 넘는 것 - 지속 전류가 1암페어를 넘어설 것	르네사스	삼성전자, DB하이텍, 네패스
	반도체 장비	크리스탈 에피택셜 성장(증착)장비	뉴플레어	유진테크
		이온주입기	닛신전기	-
		자동 웨이퍼 장전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챔버 대응 웨이퍼 이송장치	미라이얼	3S
		리소그래피(노광)장치 - 웨이퍼의 처리를 위한 스텝 앤 리피트 방식 또는 스텝 앤 스캔 방식의 노광장치로, 광학방식의 것 또는 X선을 이용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광원의 파장이 193nm 미만의 것 -나노미터로 나타낸 광원의 파장에 0.35를 곱해서 얻은 수치를 개구수의 값으로 나눈 수치가 45이하인 것 •Imprint Lithography 장치로 45nm 이하 선폭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직접묘화방식으로 반도체 소자 또는 집적회로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치로, 전자빔을 사용한 것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조사측면의 지름이 15nm 이하의 것 -중첩 오차(평균치에 3시그마를 더한 것)이 27nm 이하의 것	-	-
		블랭크 마스크	호야, AGC	에스앤에스텍, SKC
		웨이퍼(실리콘)	신에츠화학, SUMCO	SK실트론
		화합물 웨이퍼	신에츠화학, 스미토모화학(GaN), 쇼와덴코(SiC)	티씨케이(SiC)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재인용, 2019.7.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 기록

- **(품목별)** '19.6월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 시스템 반도체 수요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8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25.3% 감소
 - (메모리 반도체: 59.0억 달러, △30.6%) 메모리MCP는 증가했으나 서버·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D램 및 복합부품직접회로(MCOs)·낸드플래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줄어들며 8개월 연속 하락
 - (시스템 반도체: 20.0억 달러, △4.8%) 패키징·파운드리·팹리스 물량 축소로 9개월 연속 하락세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부진했으나 국내 세트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은 회복
 - 중국(홍콩포함, 53.3억 달러, △32.3%)은 D램·MCOs·낸드플래시·메모리MCP 등 메모리 반도체 (△36.1%)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감소(△2.1%) 등으로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 베트남(9.1억 달러, 20.6%↑)은 낸드플래시·MCOs는 감소했으나 D램·메모리MCP 등 메모리(55.8%↑)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1.6%↑) 수출이 동반 증가하면서 다시 회복세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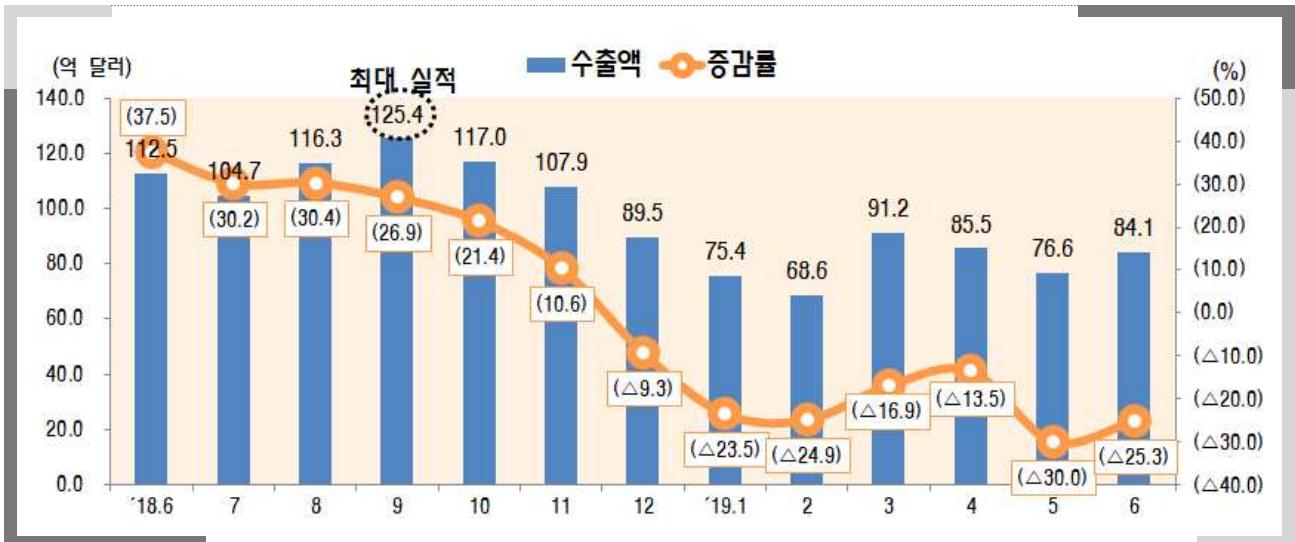
표 1-4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7	8	9	10	11	12	'19.1	2	3	4	5	6	상반기
반도체	104.7 (30.2)	116.3 (30.4)	125.4 (26.9)	117.0 (21.4)	107.9 (10.6)	89.5 (△9.3)	75.4 (△23.5)	68.6 (△24.9)	91.2 (△16.9)	85.5 (△13.5)	76.6 (△30.0)	84.1 (△25.3)	481.5 (△22.4)
메모리	75.3 (45.3)	86.0 (42.5)	96.2 (44.5)	87.7 (26.5)	80.5 (16.9)	63.8 (△10.3)	47.6 (△30.5)	45.1 (△31.1)	65.4 (△18.6)	58.6 (△16.2)	52.7 (△35.8)	59.0 (△30.6)	328.4 (△27.2)
D램	38.7 (52.4)	41.3 (51.6)	44.9 (54.3)	42.6 (37.0)	42.0 (40.7)	32.4 (1.1)	24.3 (△22.1)	21.0 (△29.9)	29.0 (△19.9)	27.9 (△24.7)	23.6 (△42.1)	25.0 (△39.7)	150.8 (△30.4)
낸드	5.7 (55.0)	6.0 (17.7)	7.4 (29.3)	7.1 (35.5)	6.6 (32.1)	6.2 (25.3)	4.1 (△26.1)	3.7 (△41.3)	5.9 (△16.7)	6.7 (17.3)	4.7 (△32.9)	4.4 (△37.6)	29.6 (△23.8)
MCP	13.4 (△19.9)	18.2 (△6.6)	20.1 (△18.8)	18.6 (△30.9)	18.4 (△32.2)	14.5 (△46.7)	12.5 (△49.8)	11.9 (△45.5)	19.0 (△32.4)	15.9 (△18.7)	14.6 (△15.4)	20.0 (13.9)	93.9 (△27.3)
시스템 반도체	23.1 (2.0)	23.7 (5.4)	22.9 (△9.3)	23.0 (8.2)	21.7 (△3.5)	20.3 (△2.9)	21.6 (△6.3)	18.7 (△6.0)	20.0 (△9.8)	21.2 (△6.6)	18.4 (△13.0)	20.0 (△4.8)	119.9 (△7.8)
개별 소자	1.3 (27.1)	1.4 (15.6)	1.2 (△4.1)	1.4 (22.8)	1.3 (3.8)	1.2 (△7.0)	1.4 (2.6)	1.1 (△7.1)	1.3 (△2.2)	1.3 (2.2)	1.3 (1.0)	1.3 (△3.1)	7.6 (△1.0)
광전 소자	3.4 (△11.8)	3.8 (△11.2)	3.7 (△21.5)	3.6 (△3.8)	3.0 (△26.1)	2.7 (△37.5)	3.3 (△24.1)	2.5 (△33.2)	3.2 (△28.1)	3.2 (△10.4)	3.2 (△4.1)	2.8 (△22.2)	18.1 (△21.1)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22.1	32.7	40.7	중국	32.7	-29.3	38.8	185.5	-27.4	38.5
2	홍콩	335.7	24.0	26.2	홍콩	20.7	-36.6	24.6	115.2	-31.4	23.9
3	베트남	109.6	18.7	8.6	베트남	9.1	20.6	10.8	56.8	1.9	11.8
4	미국	68.8	54.8	5.4	미국	5.3	-9.2	6.4	31.1	29.3	6.5
5	대만	65.5	48.8	5.1	대만	4.8	-6.7	5.7	21.2	-19.9	4.4
6	필리핀	55.1	29.2	4.3	필리핀	2.7	-37.9	3.2	16.2	-39.8	3.4
7	싱가포르	28.3	-10.2	2.2	싱가포르	1.6	-26.9	1.9	12.0	-17.1	2.5
8	일본	15.0	3.9	1.2	인도	1.3	-7.9	1.5	7.5	28.8	1.6
9	독일	13.8	36.8	1.1	일본	1.1	-21.8	1.2	6.3	-18.8	1.3
10	인도	12.8	105.4	1.0	말레이시아	1.0	9.8	1.2	5.3	-5.8	1.1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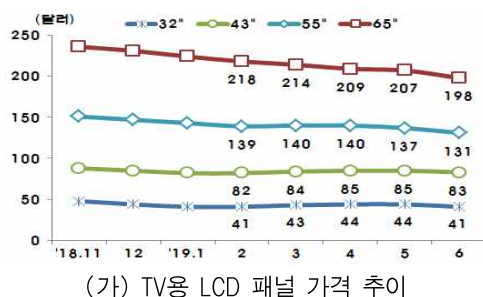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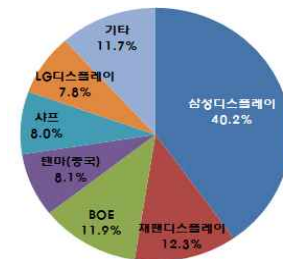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역성장하고 있으나 초고화질·OLED 수요로 하반기 회복세가 기대

- (시장 전망) '19.하반기에는 8K용 패널, 스마트폰용 OLED 등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등이 기대
 - (대형 패널) 지난 2월 이후 상승 조짐을 보였던 50인치 이하의 TV용 LCD 패널 가격은 공급과잉, 미·중 관세 인상 우려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내림세로 전환
 - 하지만 올해 8K용 패널 출하량이 34.5만 대('18년, 3.8만 대)로 전년 대비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19.하반기 패널 시장의 성장세에 기여할 전망(파이낸셜, 7.22일, 원소스 IHS)
 - (중소형 패널) 글로벌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도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하량은 9,077만 대('19.1분기) → 1억 2,164만 대(3분기)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디지털타임스, 6.17일, 원소스 IHS)
 - 한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OLED 패널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7.4일)로 국내 업체의 패널 공급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경쟁 현황)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업체들의 중위권 경쟁도 치열
 - (삼성디스플레이) '19.1분기 글로벌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34억 5,396만 달러로 시장 점유율 40.2%(금액 기준)를 차지. 8분기 연속 40%대로 선두를 유지(조선비즈, 6.17일, 원소스 IHS)
 - (BOE) 동 시장에서 올해 1분기 JDI(12.4%)와 격차를 빠르게 줄여 3위(11.9%)를 차지. '18.1분기에는 6.5%로 JDI(12.4%)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
 - 특히 '19.2분기에는 중국 업체(BOE 15.1%, Tianma 11.0% 등)의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일본 업체(JDI)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

그림 1-4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 및 스마트폰용 패널 업체별 점유율(1분기)



(가)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



(나) 스마트폰용 패널 업체별 점유율('19.10, 금액 기준)

자료 : IHS, 2019.6. / 디지털타임스, 6.17. 등(원소스 IHS)

□ 국내외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OLED 사업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등을 본격화할 전망

- 국내 업체는 공정 기술 향상, 생산량 확대 등을 전개해 OLED 사업에 집중할 계획
 -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양산을 앞당기기 위해 QD 전용 공정 등 다방면의 기술을 검토 중인 상황. 하반기 내에 대형 OLED 사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
 - (LG디스플레이) '19.8월 중국 광저우 8.5세대 공장에서 OLED 패널을 본격 양산, 현재 월 7만 장 수준인 TV용 OLED 패널 생산 능력은 최대 월 16만 장까지 늘어날 전망(파이낸셜, 7.7일)
 - 특히 광저우 공장은 MMG(Multi Model On Glass)⁷⁾ 공정을 적용해 한 장의 대형 패널에서 더 많은 TV용 패널을 생산해낼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예정
 - 또한 경기도 파주에 월 3만 장의 P-OLED 공급이 가능한 E6 공장을 신설한 상태로 '19.하반기에 애플 아이폰용 플렉시블 올레드(P-OLED) 수주 가능성도 가시화
- 중국 업체들도 하반기부터 6세대 플렉시블 OLED 설비 투자를 잇따라 진행할 전망
 - (BOE) 첫 플렉시블 OLED 라인인 B7에서 최근 당초 계획한 생산량(월 4만 8,000장) 달성에 성공. B11라인(면양)도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해 OLED 생산량을 확대할 전망
 - B12(세 번째 플렉시블 OLED 팹)용 장비투자도 하반기 내에 집행해 '20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
 - (CSOT) T4에 이미 1단계를 투자('18.8월)해 생산 능력을 안정화시키고 2단계 투자를 준비 중인 상황
 - (티안마) 기존 플렉시블 OLED 설비가 있는 우한 공장에 추가 증설 투자를 시작(6.23일)

□ 한편 국내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패널 생산 차질이 우려돼 해결 방안을 모색

- 올해 OLED 시장 확대에 사활을 걸었던 국내 업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OLED 주요 부품·소재(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타 공급처 확보에 집중
 - 국내 업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⁸⁾ 93.7%(1,214만 달러), 에칭가스 43.9%(2,844만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에 돌입(한국무역협회, '19.1~5월 기준)
 - (삼성디스플레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코오롱인더스트리, SK이노베이션 등)을 공급처로 확보해 고강도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 중인 상황
 - (LG디스플레이) 다른 규제 품목에 비해 일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칭가스(불화수소)는 중국·국내산 제품 등으로 대체(최종 실험을 진행 중인 상황)해 '탈 일본화'를 가속할 계획
 -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생산 타격보다 일본 수출 규제 파장으로 대형 고객사(애플 등)의 수급처 변동도 우려
 - ※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아이폰용 올레드 패널 90%를 공급)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원화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7) 거대한 패널 한 판을 다양한 크기로 잘라냄으로써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해 효율성이 높은 기술

8) 스마트폰의 커버 글라스(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폴더블·롤러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소재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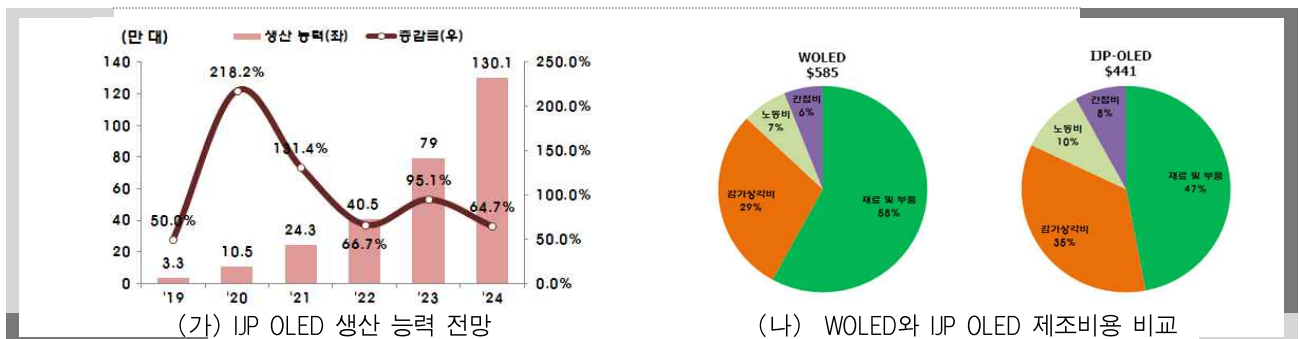
□ 일본발 수출 제한이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면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의 공급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19.하반기부터 '20년까지 OLED 투자 및 라인 가동을 가속화할 예정
 - 특히 내년('20년)에 글로벌 중소형 OLED 투자 비중은 중국 업체가 53%를 차지하면서 국내 업체(40%)의 투자 비중을 넘어설 전망(조선일보, 7.8일, 원소스 IHS)
 - 애플이 공급처 다변화(BOE, LG디스플레이 등)를 모색 중인 가운데 최대 공급처인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하여 국내 기업이 아이폰용 패널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중국 업체의 반사이익 예상
 - ※ 중화권 IT매체들과 업체에 따르면 애플이 BOE 등에 스마트폰 OLED 패널 공급 가능성을 타진(7.10일)

□ OLED 패널의 높은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IJP(잉크젯 프린팅) 기술이 부상

- 글로벌 IJP OLED 생산 능력은 '20년 10.5만 대→'24년 130만 대로 늘어날 전망. 생산 가능 면적도 동기간 20.9만㎡→730만㎡로 30배 이상 확대될 예정(IHS, '19.6월)
 - 잉크젯 프린팅(Inkjet-printed, IJP) 기술은 기존 OLED보다 장비, 공장 건설 등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점, 재료 사용량이 95% 이상인 점 등의 장점을 보유해 차세대 기술로 기대
 - 또한 기존 OLED 패널은 고가의 생산 비용으로 시장 침투가 제한적이었으나 IJP OLED는 생산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우수
 - ※ IJP OLED 생산 방식은 대형 패널(65형 4K TV) 제조 시 WOLED 대비 15~25%. 중소형(13.3인치 기준)도 파인메탈마스크(FMM) OLED에 비해 20%가량 생산 비용 절감 가능(IHS, '19.6월)
 - (업체 동향) 이 기술의 선두주자인 재팬디스플레이(JDI)가 내년부터 시험 생산→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IJP OLED 시장을 열 것으로 분석
 - 중국은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LCD 시장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IJP OLED 기술을 개발해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 '20~21년 양산 라인 투자도 확대해 JDI 뒤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상
 - ※ BOE는 '18년 말 55형 IJP OLED 개발에 성공. CSOT는 '21년부터 IJP 공정 기반의 생산 공장을 가동할 계획
 - 국내 업체는 기존 증착 방식(WOLED)의 시장 지배를 전망하면서도 차세대 OLED 기술 개발에 매진

그림 1-5 | IJP OLED 생산 능력 전망 및 65형 4K TV 제조시 WOLED와 IJP OLED 제조비용 비교



자료 : IHS, 2019.6.

2) 수출 동향

□ 디스플레이 패널은 OLED 수출이 반락하면서 26.6% 감소한 15.9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부분품 수출은 상승세지만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OLED 패널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도 3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
 - (LCD 패널 : 6.6억 달러, $\Delta 43.3\%$) 중국 업체의 고세대 생산설비 증설로 패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7억 달러를 하회
 - (OLED : 6.1억 달러, $\Delta 12.5\%$)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 부진으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전환
 - (패널 부분품 : 3.2억 달러, $6.0\% \uparrow$) 해외 생산 거점인 중국·베트남 등으로의 LCD 부품(BLU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은 3개월 연속 상승세
- **(지역별)** 주요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베트남은 감소했으나 일본은 상승세가 지속
 - 중국(홍콩포함, 9.1억 달러, $\Delta 28.0\%$) 수출은 현지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달에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품이 하락세(1.9억 달러, $\Delta 1.9\%$)로 전환돼 감소세 지속
 - 베트남(4.7억 달러, $\Delta 10.1\%$)은 부분품(0.6억 달러, $32.9\% \uparrow$)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오름세를 보인 OLED 패널(2.7억 달러, $\Delta 17.3\%$)의 감소로 하락 반전
 - 일본(0.3억 달러, $125.4\% \uparrow$)은 LCD 패널(0.02억 달러, $\Delta 28.9\%$)이 감소세지만 OLED 패널(0.1억 달러, $129.2\% \uparrow$)의 양호한 흐름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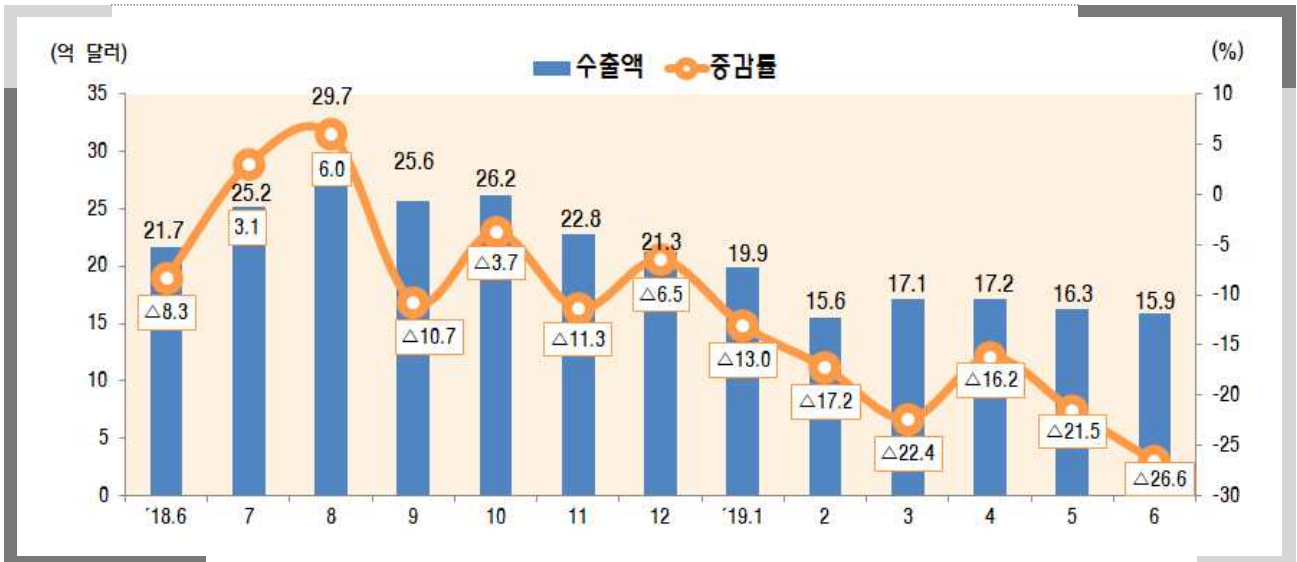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8.6	7	8	9	10	11	12	'19.1	2	3	4	5	6	상반기
패널	21.7 ($\Delta 8.3$)	25.2 (3.1)	29.7 (6.0)	25.6 ($\Delta 10.7$)	26.2 ($\Delta 3.7$)	22.8 ($\Delta 11.3$)	21.3 ($\Delta 6.5$)	19.9 ($\Delta 13.0$)	15.6 ($\Delta 17.2$)	17.1 ($\Delta 22.4$)	17.2 ($\Delta 16.3$)	16.3 ($\Delta 21.5$)	15.9 ($\Delta 26.6$)	102.0 ($\Delta 19.5$)
LCD	11.7 ($\Delta 18.9$)	12.4 ($\Delta 14.9$)	12.9 ($\Delta 19.0$)	11.6 ($\Delta 21.8$)	11.5 ($\Delta 10.9$)	9.6 ($\Delta 30.5$)	9.6 ($\Delta 20.1$)	8.6 ($\Delta 31.6$)	6.7 ($\Delta 35.6$)	7.3 ($\Delta 37.0$)	7.0 ($\Delta 35.9$)	7.0 ($\Delta 40.4$)	6.6 ($\Delta 43.3$)	43.3 ($\Delta 37.3$)
OLED	7.0 (14.7)	9.6 (45.5)	13.2 (53.8)	10.8 (6.7)	11.0 ($\Delta 2.2$)	10.0 (13.4)	8.7 (12.6)	8.0 (12.8)	6.2 (7.9)	6.9 ($\Delta 7.0$)	7.2 (7.9)	6.2 (3.7)	6.1 ($\Delta 12.5$)	40.5 (1.8)
부분품	3.0 ($\Delta 4.3$)	3.2 ($\Delta 2.4$)	3.6 (3.4)	3.3 ($\Delta 14.0$)	3.7 (20.6)	3.2 (3.6)	3.0 ($\Delta 0.8$)	3.3 (2.8)	2.7 ($\Delta 0.6$)	2.9 ($\Delta 4.3$)	3.1 (1.9)	3.1 (2.6)	3.2 (6.0)	18.3 (1.4)

자료 : IITP, KTSPI



그림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2019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135.1	-20.9	48.7	중국	8.8	-27.3	55.4	54.7	-20.0	53.6
2	베트남	95.0	22.3	34.2	베트남	4.7	-10.1	29.9	33.4	-4.9	32.7
3	멕시코	11.0	-23.0	4.0	홍콩	0.3	-42.0	2.1	2.3	-27.8	2.3
4	홍콩	6.2	-23.0	2.2	일본	0.3	125.4	1.9	1.4	83.0	1.4
5	폴란드	5.1	-10.5	1.8	멕시코	0.3	-78.0	1.9	2.0	-58.4	2.0
6	슬로바키아	3.9	0.9	1.4	미국	0.2	19.3	1.4	1.1	7.9	1.1
7	미국	2.3	19.9	0.8	폴란드	0.2	-54.0	1.1	1.0	-60.5	1.0
8	일본	1.9	20.5	0.7	슬로바키아	0.1	-69.4	0.8	0.7	-68.2	0.7
9	헝가리	1.9	93.5	0.7	체코	0.1	85.9	0.7	0.4	-26.7	0.4
10	터키	1.5	8.5	0.6	인도	0.1	-22.4	0.6	0.4	-21.9	0.4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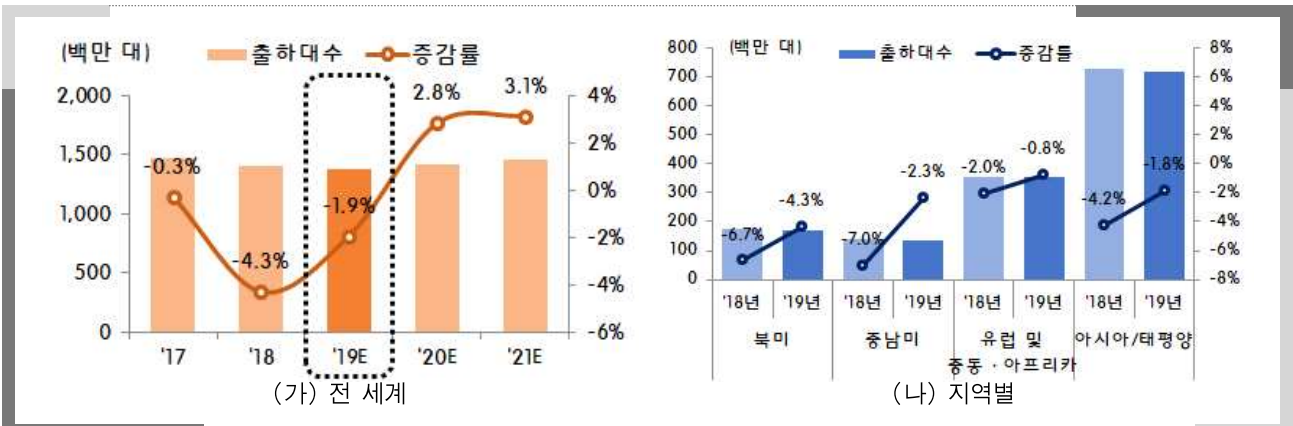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19년 스마트폰 시장은 수요 둔화로 감소세가 지속('18년 $\Delta 3.1\%$ →'19년 $\Delta 1.9\%$)

- (시장 전망) 올해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13.8억 대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해 2년 연속 역성장하나 새로운 폼팩터가 적용된 제품 출시로 하락폭은 둔화될 전망(IDC, '19.6월)
 -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미국·서유럽 등 성장을 견인했던 선진시장의 스마트폰 둔화, 교체기간 장기화,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불안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 ※ 고가 휴대전화의 수명은 '18년 2.6년에서 '23년 2.9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Gartner, '19.7월)
 - 그러나 인도(11.6%)·베트남(5.4%)·인도네시아(3.3%) 등 신흥국이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 세트 업체들의 멀티·3D카메라 등 폼팩터 변화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며 감소폭은 둔화될 전망
 - 감소세를 지속하는 스마트폰 시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5G 통신 지원 스마트폰 등의 수요가 본격화 되면서 '20년 이후 2.8%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 5G 스마트폰은 '19년 높은 출고가, 시장 초기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체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엔 22.8%를 차지할 전망(IDC, '19.6월)
- (지역별) 북미, 중남미,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모든 지역에서 역성장 예상
 - 브라질($\Delta 2.3\%$) 등 중남미($\Delta 2.6\%$),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Delta 0.1\%$), 중국($\Delta 5.7\%$)·일본($\Delta 15.1\%$) 등 아시아/태평양($\Delta 1.0\%$) 등은 신흥 시장 보급률 증가,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요가 부진하면서 역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18년 대비 감소율은 0~3%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
 - 북미($\Delta 4.3\%$)는 중국 제재 등 불안 요소 증가로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되며 하락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그림 1-7 전 세계 및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 전망



자료 : IDC, 2019.6.

□ 하반기, 5G폰 중심의 스마트폰 대전 예고...경쟁사 부재 속 국내업체 조기 선점 기대

- 애플을 제외한 주요 업체는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로 5G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체 간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이 예상
- 삼성전자와 LG전자, 화웨이 등 모든 주요 제조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5G 스마트폰 대거 출시를 계획하며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애플은 5G 모뎀칩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20년 이후 5G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
- 한편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제재를 완화할 뜻을 밝힌 가운데 북한의 3G 통신망 구축 지원 의혹, 미국 의회의 화웨이 제재 법제화 추진 등으로 추후 향방은 불투명. 한편 화웨이 해외 판매는 감소
- ※ 화웨이는 '19.6월 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3 축소

표 1-8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하반기 전략

업체별	내용
 삼성전자	• 8.7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10'을 공개할 계획이며 8월 중 출시될 전망 - 6.4인치 일반형 '갤럭시노트10', 6.8인치 고급형 '갤럭시노트10+' 등 2종으로 출시. 2가지 모델 모두 5G를 지원하며 사용성이 크게 확장된 'S펜', '인피니티O' 방식 화면이 채택될 전망 - 보급형 '갤럭시A90 5G'도 8월 말~9월 사이 선보여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 - '갤럭시 폴드'는 디스플레이 결함 개선 후 내부 테스트 단계를 통과했으며 8월 출시 가능성 제기. 그러나 일본의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로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LG전자	• '19.9월 초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가전전시회(IFA)에서 'V50 씽큐' 후속작을 공개할 예정 - 전작인 'V50 씽큐' 전용 액세서리 '듀얼 스크린'이 멀티태스킹의 실용성 등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듀얼 스크린 후속 제품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
 Apple	• 통상적인 신제품 발표 일정을 따라 '19.9월 이후 신모델인 '아이폰11' 시리즈를 공개할 전망 - 보급형 R모델, 고급형 S모델, 대화면 고급형 S Max 등 3가지 모델로 예상되며 제품 뒷면에 초광각용 렌즈를 추가해 카메라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한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애플과의 소송 문제로 5G 모뎀칩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아이폰11'은 5G 모델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르면 '20년 초 또는 늦으면 '20.하반기 5G 모델이 공개될 전망
 HUAWEI	•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메이트20X 5G'를 7.26일 공개,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를 8월 중 출시하며 5G시장 공략을 추진한다는 계획 - 화웨이는 '18.10월 출시된 '메이트20'의 5G 모델인 중국 첫 5G 스마트폰 '메이트20X 5G'를 출시할 예정 - 한편 화웨이는 '메이트X'를 9월 중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출시가 미뤄지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선점을 위해 출시 일정을 8월로 앞당긴 게 아니냐는 분석 •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완화하며 양국간 무역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화웨이의 북한 3G 통신망 구축 지원 의혹, 미국 의회의 법제화 추진 등으로 다시 난항 우려 -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에게 라이선스를 발행하며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7.9일) - 그러나 미국 상원은 7.16일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시 의회 승인 필요,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회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하며 화웨이 제재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 또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7.22일 화웨이가 '08년부터 북한에서 3G망 구축 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도

자료 : 각 사 / 언론 보도 자료 외

□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우려로 난항이 예상

- **(2분기 실적)** 상반기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 수요 부진으로 신제품 효과가 미미하면서 국내업체 실적은 하락
 - 삼성전자(IT·모바일 부문)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7,560만 대(5.3%↑)로 집계되나 중저가 비중 확대, 하드웨어 스펙 상향 등으로 수익성이 부진, 2조 초반대의 영업이익에 그친 것으로 추정
 - LG전자(모바일커뮤니케이션 사업)도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이 반영되며 2,000억 원대 초반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
- **(일본 제재 우려)** 스마트폰 생산의 필수 소재와 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산업의 발목도 잡을 것이란 우려 제기
 - 일본이 7.3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전략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이들 소재와 부품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증가
 - ※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 국가로 지정한 27개 나라에 대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유효기간 3년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배제 시 850개 이상의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 모바일 기기용 부품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듀플렉서·카메라 등 휴대폰 부품 사용이 제한되며, 일본 소재를 사용해 제작하는 스마트폰 배터리 공급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
 - ※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10’ 시리즈에 일본 무라타의 와이파이·블루투스 모듈을 탑재하고 있으며,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도 국산 부품을 사용한 전작과 달리 ‘갤럭시S10’부터 무라타 제품을 사용
 - 일본 부품 업체들은 제품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기술력도 우수해 일본 소재 및 부품 사용이 제한될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 ※ 국내업체는 플래그십 제품에 일본 부품을, 보급형 제품에 국내 및 중화권 제품을 주로 활용

○ 일본 수입 제한이 우려되는 스마트폰 관련 품목(전자신문, '19.7.15일 기사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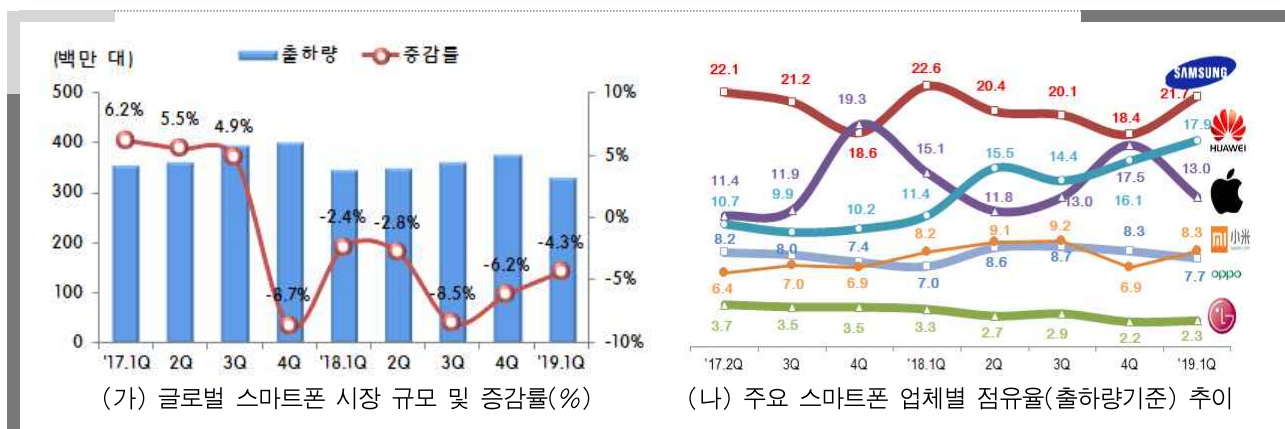
- (배터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배터리 공급업체는 각각 삼성SDI와 LG화학으로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 전해질·분리막)는 일본에서 수입
 - ※ 특히 핵심 소재로 꼽히는 배터리 분리막은 거의 전량 일본 아사히가세이와 도레이에서 수입
- (듀플렉서)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안테나로도 수신 주파수와 송신 주파수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듀플렉서는 일본이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
- (카메라) 특히 카메라를 구성하는 렌즈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품인 스페이서는 일본 기모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98% 이상 점유율을 확보
- (기타) 스마트폰에 쓰이는 렌즈용 수지도 일본이 98%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인쇄회로기판(PCB)을 보호하기 위한 블랙실드테이프 분야에서도 일본 다츠다 등이 주도권을 확보

2) 수출 동향

□ 완제품·부분품 동반 감소로 2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하회했으나 하락세는 둔화

- (품목별) '19.5월 휴대폰 수출(9.9억 달러, $\Delta 22.6\%$)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현지 생산 및 부분품 현지 조달이 늘어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
 - (휴대폰 완제품 : 4.9억 달러, $\Delta 27.2\%$)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국내업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하락세 지속. 그러나 화웨이 제재 등 경쟁 업체의 부재 속에 5G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로 하반기 반등도 기대
 - ※ LG전자는 경기도 평택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 하이퐁과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전하기로 결정(4.25일)
 - (휴대폰 부분품 : 5.0억 달러, $\Delta 17.5\%$) 원가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 증가,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 등 후발업체의 수주 증가 등으로 17개월 연속 하락세
- (지역별) 해외 생산 거점인 베트남은 증가했으나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 및 중국 등은 감소
 - 완제품 최대 수출국인 미국(3.5억 달러, $\Delta 30.9\%$)은 하반기 5G 신제품 및 플렉시블 모델 출시에 따른 대기효과 등으로 완제품과 부분품이 동반 부진
 - 최대 생산 거점인 베트남(2.1억 달러, 2.1% $\uparrow$)은 멀티카메라 탑재 확대에 따른 카메라모듈 및 커넥터·PCB 등과 완제품(98.2% $\uparrow$)이 동반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 중국(홍콩포함, 1.7억 달러, $\Delta 39.8\%$)은 현지 업체의 시장 장악력 확대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 국내 업체의 생산라인 축소(삼성전자 '18.12월 텐진 생산라인 중단), 카메라모듈·eMMC 등 부분품과 완제품 모두 부진하며 '18.2월 이후 17개월간 감소세를 지속
 - 한편 영국은 국내 업체의 신모델 출시에 따른 완제품, 콜롬비아는 PCB·커버 등 부품 중심으로 급성장
 - ※ 국내업체는 6월 영국에서 '갤럭시 S10 5G'·'V50썬규'를 출시했으며, 특히 영국은 '19.6월 15만 명이 5G에 가입(우리나라165만 명에 이어 2위)하며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국가(GSMA, '19.7월)

그림 1-8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IITP,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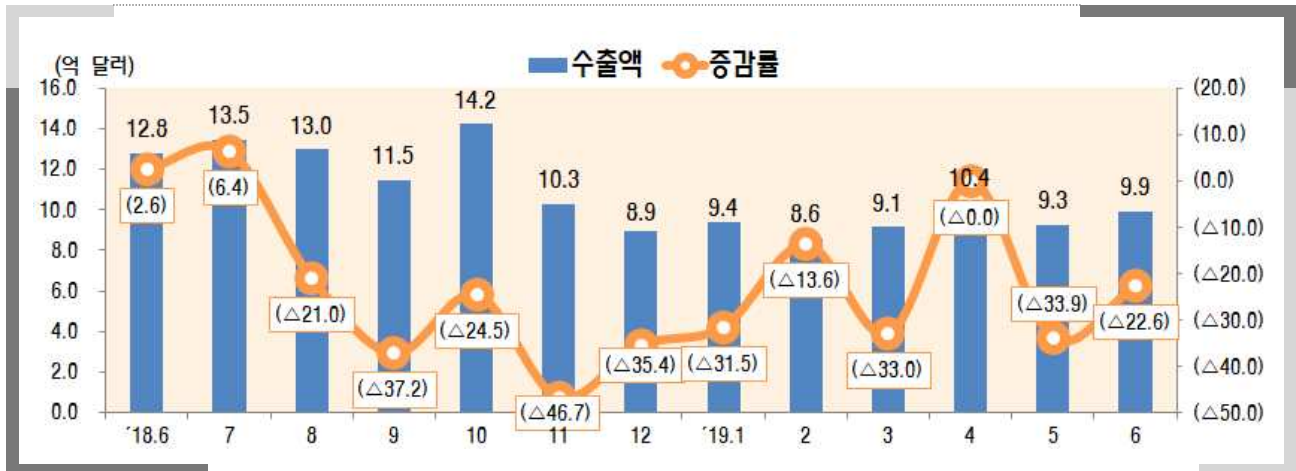
표 1-9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7	8	9	10	11	12	'19.1	2	3	4	5	6	상반기
휴대 단말기	13.5 (6.4)	13.0 (△21.0)	11.5 (△37.2)	14.2 (△24.5)	10.3 (△46.7)	8.9 (△35.4)	9.4 (△31.5)	8.6 (△13.6)	9.1 (△33.0)	10.4 (△0.0)	9.3 (△33.9)	9.9 (△22.6)	56.7 (△23.9)
완제품	6.3 (38.6)	5.1 (△15.4)	4.1 (△36.8)	6.1 (△19.4)	4.5 (△43.9)	3.9 (△5.0)	4.3 (10.9)	4.6 (31.6)	4.0 (△38.7)	5.3 (43.9)	4.0 (△41.3)	4.9 (△27.2)	27.2 (△12.9)
부분품	7.1 (△11.7)	7.8 (△24.3)	7.4 (△37.5)	8.2 (△27.8)	5.8 (△48.7)	5.0 (△48.3)	5.2 (△48.0)	4.0 (△38.3)	5.1 (△27.7)	5.0 (△24.4)	5.2 (△26.7)	5.0 (△17.5)	29.5 (△31.8)

자료 : IITP, KTSPI

그림 1-9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0.5	-10.0	34.6	미국	3.5	-30.9	35.3	21.7	-17.0	38.2
2	중국	39.3	-36.7	26.9	베트남	2.1	2.1	20.8	12.7	-2.3	22.4
3	베트남	25.1	-23.1	17.2	중국	1.4	-44.2	13.9	8.8	-55.8	15.6
4	캐나다	6.4	200.1	4.4	영국	0.4	599.6	4.3	0.7	83.1	1.2
5	홍콩	3.6	-41.6	2.5	캐나다	0.4	-45.6	3.8	2.6	17.7	4.6
6	일본	2.8	-11.7	1.9	독일	0.3	-59.6	2.8	0.9	-43.8	1.5
7	독일	2.7	20.1	1.8	콜롬비아	0.3	23,390.4	2.8	1.4	27,660.9	2.4
8	브라질	2.5	-56.7	1.7	홍콩	0.3	0.3	2.7	1.7	-12.9	3.0
9	콜롬비아	1.9	883.9	1.3	멕시코	0.2	30.2	2.0	0.5	10.5	0.8
10	인도	1.5	-58.3	1.0	이집트	0.1	9,214.6	1.4	0.3	3,464.1	0.5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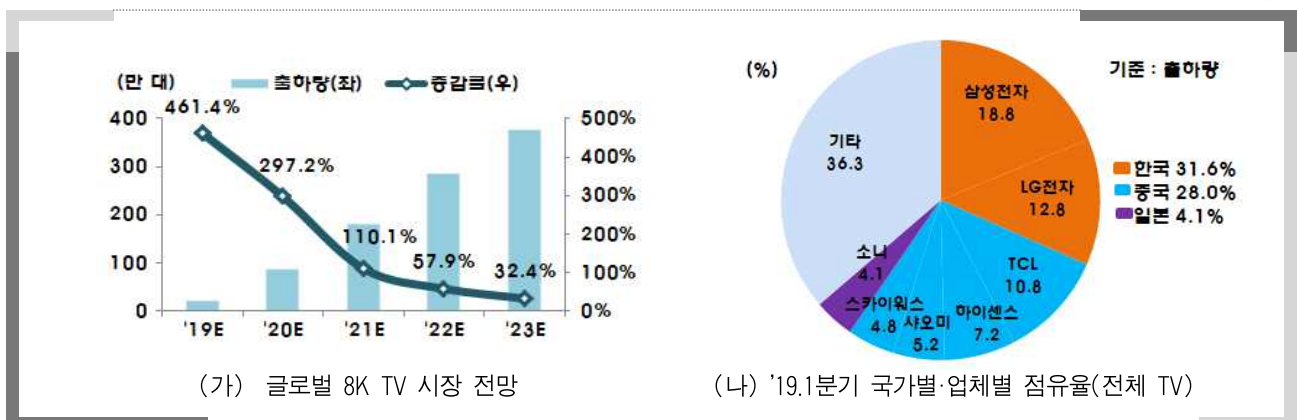
5 D-TV

1) 수출 환경

□ '20년 8K TV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경쟁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

- (시장 전망) 내년부터 8K TV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글로벌 TV 시장 호황도 지속될 전망
 - ※ 글로벌 8K TV 판매량 전망(만 대) : ('20년) 85.4 →('21년) 179.4→('22년) 283.2→('23년) 375
 - 올해 기대했던 8K TV 시장은 콘텐츠 부족으로 '19년 판매량 전망치가 또다시 하향 조정됐으나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콘텐츠가 확대돼 '20년부터 급성장세에 돌입할 전망
 - ※ '19년 8K TV 판매량 전망치 변동 추이(전망 시점, 만 대) : ('19.1월) 33.8→('19.4월) 30.9→('19.7월) 21.5
 -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8K TV가 차지하는 비중('19년 0.09%→'23년 1.62%)이 늘어나면서 '19년 1,160억 달러→'20년 1,210억 달러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쟁 현황) 한국이 주도하는 8K TV 시장에 日·中이 진입하면서 하반기 경쟁 구도가 형성
 - (한국) 8K TV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이미 '18.11월 유럽·미국 등에 8K QLED TV를 출시. LG전자는 '19.3분기부터 북미·유럽 등에 8K 올레드 TV를 확대 출시할 계획
 - ※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촉발된 수출 규제(7.4일)로 인해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내 업체의 일본 시장 공략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일본) 미국 시장에 소니가 85·98인치 8K TV를 출시('19.6월)하면서 삼성전자와 경쟁이 본격화
 - (중국) TCL·하이센스는 'CES2019('19.1월)'에서 공개한 8K TV를 올 하반기 내에 출시할 계획. 화웨이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라우터 등을 탑재한 5G 8K TV를 올해 내 선보일 예정
 - ※ TCL은 75인치 '8K QLED TV X10'을 '19.9월 호주 시장에 출시할 계획

그림 1-10 | 글로벌 8K TV 시장 전망 및 올 1분기 국가별·업체별 점유율(출하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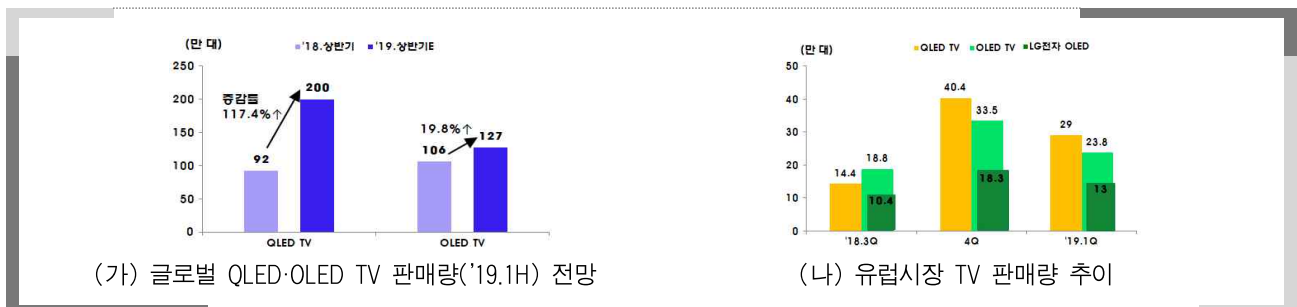


자료 : 서울경제, 7.14. / 한국경제, 7.1. (이상 원소스 IHS)

□ 프리미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 양상(QLED vs OLED)이 지속

- QLED TV 수요는 급증한 반면 성장이 기대되던 OLED TV의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
 - (QLED TV) '19.상반기 판매량은 117.4% 증가한 200만 대 이상일 전망
 - ※ IHS가 '19.2분기 판매량을 97만 대로 예상했으나 이미 삼성전자 판매량만 100만 대를 넘은 상황
 - (OLED TV) 동기간 OLED TV 판매량은 127만 대로 성장세. 하지만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18.상, 112%)에 비해 크게 둔화된 19.8% 증가에 그칠 전망
- (삼성전자) QLED TV 수주 확대 전략(8K TV 先출시, 제품 라인업 확대 등)을 진행
 - OLED TV의 최대 시장인 유럽 시장⁹⁾에 'QLED 8K('18년)'를 조기 출시하는 전략 등으로 '18.4분기부터 QLED TV가 OLED TV 판매량을 역전하면서 급성장세가 관측
 - ※ 유럽 시장서 QLED TV 판매량(서울경제, 7.6일, 원소스 IHS) : ('18.1분기) 13.1만 대→ (4분기) 49.1만 대
 - 또한 주력으로 밀던 초대형 제품 이외에 49인치('18년 출시)·43인치('19년) QLED TV도 잇따라 출시해 중저가인 40인치 대 라인까지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 (LG전자) 삼성전자의 전략이 시장에 통하면서 OLED TV 경쟁력이 약화되자 가격 인하, 생산력 증대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
 - 유럽 OLED TV 시장(LG전자 56%)에서 ① OLED TV 진영 내 업체 간 경쟁 심화, ② '18.4분기 이후 QLED TV¹⁰⁾의 판매량 역전 등으로 시장 내 위상이 약화되면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
 - ※ '19.1분기 유럽 시장서 OLED TV는 23.8만 대가 판매되었고 그 중 LG전자는 13만 대를 기록
 - 이에 삼성전자(QLED TV)의 전략 중 하나인 가격 경쟁력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OLED TV 가격을 소니와 동시에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돌입('19.6월)
 - 또한 '19.8월 이후 8.5세대 공장 가동으로 OLED 패널 생산량 확대, '19.4분기 8K OLED TV의 일본 첫 출시 등으로 '19.하반기 OLED TV 판매량 확대 도모

그림 1-11 | 글로벌 QLED · OLED TV 판매량 전망 및 유럽시장 TV 판매량 추이



자료 : 전자신문, 7.14. (원소스 IHS) / 머니투데이, 5.13. (원소스 GfK)

9) 전 세계 OLED TV 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18년 기준)로 절반에 근접(매일경제 6.20일)

10) QLED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TCL이 유일(QLE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8%)



2) 수출 동향

□ 부분품 수요 확대가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하며 사상 최대 성장률(238.0%) 기록

- **(품목별)** 완제품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두 달 연속으로 부분품 수출이 최대 성장률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체 TV 수출액은 3.3억 달러를 기록
 - (LCD TV : 0.3억 달러, $\Delta 20.1\%$) 호주($55.7\% \uparrow$)·카타르($119.1\% \uparrow$) 등은 증가했으나 주요 수출국인 이스라엘·UAE의 부진으로 감소세
 - (OLED TV : 0.1억 달러, $\Delta 27.0\%$) 주력 수출국인 일본($2.5\% \uparrow$)으로의 수출은 늘어났으나 이스라엘($\Delta 62.0\%$), 홍콩($\Delta 75.6\%$)의 수출 감소로 하락세가 지속
 - (부분품 : 3.0억 달러, $453.8\% \uparrow$) 해외 생산 거점으로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8개월 연속 고성장세 유지. 지난달에 기록한 최고 기록을 한 번 더 경신해 최대 성장률(453.8%) 달성
- **(지역별)** 해외 생산 거점국인 멕시코·브라질·헝가리 등의 부분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은 가파른 상승세 유지
 - 초대형 TV 수요가 많은 북미 시장의 생산 거점인 멕시코(1.2억 달러, $660.5\% \uparrow$)는 6개월 연속 최대 수출국 1위를 유지하면서 부분품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
 - 마찬가지로 브라질(0.4억 달러, $2,200.3\% \uparrow$)도 네 자릿수 대의 오름세를 2개월 연속 유지
 - '19.1월부터 수출 상위권 10위 내 포진해 있는 헝가리(0.3억 달러, $12,637.3\% \uparrow$)는 프리미엄 유럽 시장에 8K TV 공급을 위한 부분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지속

표 1-11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6	7	8	9	10	11	12	'19.1	2	3	4	5	6	상반기
D-TV	1.0 ($\Delta 45.2$)	1.2 ($\Delta 39.9$)	1.2 ($\Delta 48.9$)	1.1 ($\Delta 52.6$)	1.0 ($\Delta 35.5$)	1.7 (22.8)	2.0 (69.9)	2.7 (77.5)	2.4 (68.9)	2.9 (74.8)	2.9 (111.3)	3.1 (158.8)	3.3 (238.0)	17.4 (112.1)
LCD TV	0.4 ($\Delta 33.7$)	0.3 ($\Delta 43.2$)	0.3 ($\Delta 34.7$)	0.2 ($\Delta 56.9$)	0.2 ($\Delta 43.2$)	0.2 ($\Delta 64.1$)	0.2 ($\Delta 60.3$)	0.3 ($\Delta 41.8$)	0.3 ($\Delta 48.7$)	0.4 ($\Delta 33.2$)	0.4 ($\Delta 21.3$)	0.3 ($\Delta 13.9$)	0.3 ($\Delta 20.1$)	2.1 ($\Delta 31.6$)
OLED TV	0.1 ($\Delta 38.4$)	0.1 ($\Delta 51.5$)	0.1 ($\Delta 49.4$)	0.2 ($\Delta 20.1$)	0.1 ($\Delta 26.0$)	0.1 ($\Delta 17.6$)	0.1 ($\Delta 40.8$)	0.1 ($\Delta 51.3$)	0.1 ($\Delta 35.4$)	0.1 ($\Delta 50.0$)	0.1 ($\Delta 24.8$)	0.1 ($\Delta 58.7$)	0.1 ($\Delta 27.0$)	0.5 ($\Delta 44.0$)
부분품	0.5 ($\Delta 51.8$)	0.8 ($\Delta 37.3$)	0.8 ($\Delta 52.7$)	0.7 ($\Delta 56.2$)	0.7 ($\Delta 34.6$)	1.4 (87.9)	1.7 (172.2)	2.3 (187.5)	2.0 (210.0)	2.3 (193.2)	2.4 (241.3)	2.7 (352.7)	3.0 (453.8)	14.7 (260.0)

자료 : IITP, KTSPI

그림 1-12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2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2.4	-31.8	14.4	멕시코	1.2	660.5	37.8	5.3	490.8	30.7
2	중국	1.7	4.7	10.2	브라질	0.4	2,200.3	11.6	1.4	530.8	8.3
3	폴란드	1.2	-14.3	7.1	베트남	0.3	723.5	9.4	1.5	402.1	8.6
4	UAE	1.1	-48.0	6.9	중국	0.3	294.7	7.8	1.8	389.6	10.2
5	미국	1.0	-16.5	6.3	헝가리	0.3	12,637.3	7.7	1.1	5,788.3	6.6
6	일본	0.7	27.3	4.4	슬로바키아	0.1	1,108.0	2.9	0.4	312.1	2.5
7	이스라엘	0.7	47.5	4.1	이집트	0.1	256.5	2.9	0.8	157.0	4.6
8	베트남	0.6	-50.8	3.8	인도	0.1	318.5	2.5	0.3	155.6	2.0
9	호주	0.6	-47.1	3.7	아랍에미리트 연합	0.1	-36.6	1.7	0.3	-70.0	1.7
10	브라질	0.5	-54.8	3.3	미국	0.1	-13.5	1.6	0.4	-12.5	2.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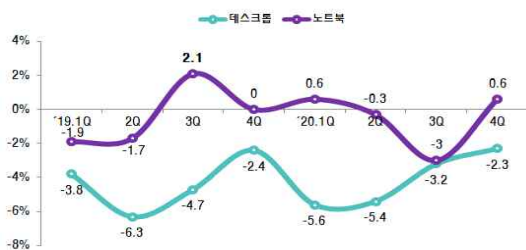


1) 수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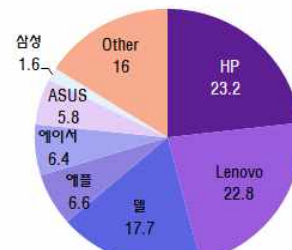
□ PC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10세대 노트북 출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완화될 전망

- (시장 전망) CPU 공급 제한 등으로 '19.1분기 글로벌 PC 시장은 5,875만 대($\Delta 2.6\%$)를 기록했으나 하반기부터 노트북 출시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될 전망(IDC, '19.6월)
 - ※ 전체 PC 시장 증감률 추이(% , IDC, '19.6월) : '19.1Q($\Delta 2.6$)→ 2Q($\Delta 3.4$)→ 3Q($\Delta 0.3$)→ 4Q($\Delta 0.8$)
- '19.1분기 데스크톱 PC(워크스테이션 포함, 2,161만 대, $\Delta 3.8\%$)는 윈도우 교체 수요에도 불구하고 CPU 공급 제한 문제 악화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 관측
- 노트북(3,713만 대, $\Delta 1.9\%$)도 신제품 출시 대기 영향으로 동기간 시장이 다소 주춤했으나 9월부터 10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이 대거 출시되면서 '19.하반기에는 상승세로 재진입할 전망
 - ※ 노트북 시장 증감률 추이(% , IDC, '19.6월) : '19.1Q($\Delta 1.9$)→ 2Q($\Delta 1.7$)→ 3Q($2.1 \uparrow$)→ 4Q($0.0 \uparrow$)
- 무역전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Exodus)' 추세가 이어질 예정
 - 美 정부가 PC 등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3,000억 달러 추가 관세를 유예했으나 글로벌 업체들은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 확대, 중국 내 생산 비용(인건비) 증가 등으로 '탈중국화'에 가속
 - (HP) 중국 충칭에서 대량의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는 HP(세계 1위 PC 생산업체, 휴렛팩커드)는 생산량의 30%를 동남아(태국·대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
 - (텔) 이미 동남아에서 시제품을 생산 중인 텔(세계 3위)은 중국 상하이 등에서 위탁생산(EMS)하고 있는 제품의 20~30%를 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
 - ※ '18년 두 업체의 출하량은 전체 PC 시장의 40%(IDC)를 차지. 따라서 두 업체가 생산기지를 이전한다면 중국 전자제품 수출 피해는 커질 것으로 전망

그림 1-13 | PC 시장 성장률 추이 및 1분기 업체별 점유율(출하량 기준)



(가) PC 시장 성장률 추이(출하량 기준)



(나) '19.1분기 업체별 점유율(출하량 기준)

자료 : IDC, 2019.6.

□ (모니터) 게임용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체들은 고해상도·고주사율 모니터에 집중

- (시장 전망) e스포츠의 인기, 비디오 게임 콘텐츠 증가 등으로 글로벌 게이밍 시장이 확대되면서 게임용 모니터의 동반 성장이 기대
 - 게이밍 제품(데스크톱, 노트북, 모니터) 시장은 연평균 7.4%의 성장률로 '19년 4,150만 대→'23년 5,530만 대로 늘어날 전망. 특히 게이밍 모니터도 동기간 12.1%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680만 대→1,07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IDC, '19.6월)
 - ※ 게이밍 제품 비중 추이('19년→'23년) : 모니터(16.3%→19.3%), 노트북(46.6%→49.1%), 데스크톱(37.1%→31.6%)
- (업체 동향) 게이밍 모니터 수요가 확대되면서 업체들은 고해상도·고주사율·저지연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집중 공략해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2019' 등에서 공개
 - (LG전자) 최신 '나노 IPS' 기술을 사용해 세계 최초로 1m/s 응답 속도를 구현한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기어 나노 IPS' 2종을 선보여 주목(6.12일). 7월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
 - (MSI) 32인치 1500R 커브드 4K 게이밍 모니터 'Optix MAG321CURV'를 발표(6.17일). VA 패널을 탑재해 고화질인 4K 해상도와 HDR 기능을 제공
 - (AOC) 240Hz 고주사율과 Full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AG271FZ2'를 발표(7.2일). 0.5m/s의 응답 시간(저지연)으로 모든 움직임이 부드럽게 보이는 점이 특징
 -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美 LA 'PC 게이밍 쇼'에서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인 'CRG5 27형'을 공개(6.10일). 240Hz 주사율과 1500R 곡률 커브드 스크린이 결합된 제품을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
 - ※ 엔비디아(NVIDIA)의 지싱크(G-Sync)¹¹⁾와도 호환되는 제품으로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
 - ASUS도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ROG를 통해 소개했던 세계 최초 DSC(Display Stream Compression)¹²⁾ 기능이 탑재된 43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발표(6.18일)

그림 1-14 | 게이밍 모니터 시장 전망 및 신제품 이미지



자료 : IDC, 2019.6. / 언론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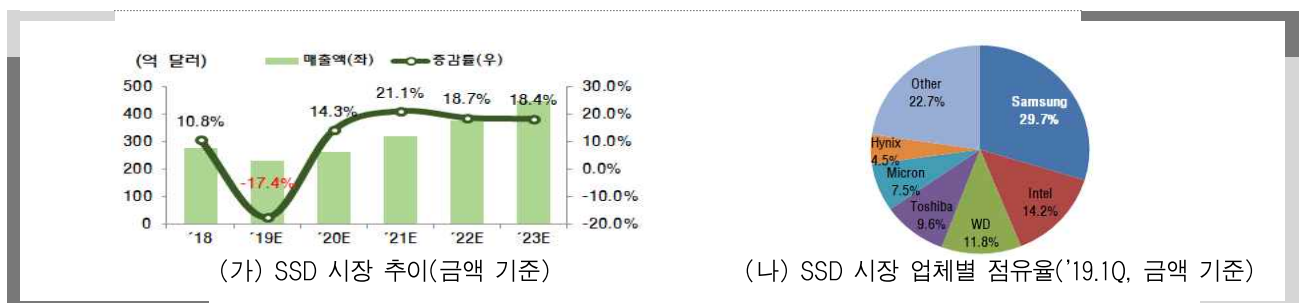
11) 엔비디아의 적응형 동기화 기술의 하나. 화면전환이 빠른 게임에서 화면이 끊기거나 찢리는 현상을 최소화 해주는 점이 특징

12) 4K(3840×2160) 해상도에서 144Hz 초고속 주사율을 Display Port 1.4 하나로 가능케 하는 압축 기술로 시각적인 손실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

□ (SSD) 단가 하락에 따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는 저비용·고성능·전력 절감 등 수준 높은 기술력을 탑재한 SSD로 시장을 선점할 계획

- (시장 전망) '19년 SSD 시장(229.9억 달러, △17.4%)은 반도체(낸드플래시) 업황 부진에 따라 SSD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IDC, '19.5월)
 - (소비자용) PC용 부품 교체(HDD→SSD), 노트북용 SSD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주 확대가 예상되지만 제품 가격 하락으로 '19년 매출액(102억 달러, △16.8%)은 감소할 전망
 - (기업용) 글로벌 IT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데이터센터 시장의 위축, 서버용 SSD 수요 둔화, 낸드 단가 하락 지속 등으로 올해 매출액(124.7억 달러, △18.4%)은 축소될 전망
- (업체 동향)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국내 업체는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 '19.1분기 SSD 시장 점유율(매출기준)은 삼성전자(29.7%), 인텔(14.2%), WD(11.8%), 도시바(9.6%), 마이크론(7.5%), SK하이닉스(4.5%)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IDC, '19.5월)
 - (SK하이닉스) 세계 최초로 개발한 '128단 1TB TLC 4D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양산을 시작(6.26일). 올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해 저비용·고성능 SSD로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이어 美 라스베이거스 'HPE 디스커버 2019'에서 72단 기반 3D 낸드 플래시 기술에 자체 NVMe¹³ 인터페이스를 입힌 기업용 SSD를 새롭게 선보여 주목(6.18일)
 - 이 제품은 통상 쓰이는 12채널을 8채널로 줄여 데이터 처리에서 발생하는 전력 절감이 가능. 성능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업용 SSD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
 - ※ 보통 SSD 하나 당 전력 사용량은 15W~25W지만 SK하이닉스가 출시한 제품은 14W 이하에서도 작동
 - 한편 WD·도시바가 조인트벤처(JV)로 운영하는 윗카이치(일본) 낸드 공장에 정전 사고 발생(6.24일).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2EB(1TB SSD 1,280만 대 규모)로 예측(6.27일)
 - ※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재고가 축적돼 있던 낸드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SSD 가격 하락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림 1-15 | SSD 시장 추이 및 업체별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



자료 : IDC, 2019.5.

13) NVMe는 저장장치를 위한 통신규격(인터페이스). 기존에 쓰이던 SATA 인터페이스 대비 최대 6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어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

2) 수출 동향

□ SSD 등 주변기기의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액은 6.9억 달러(△41.8%)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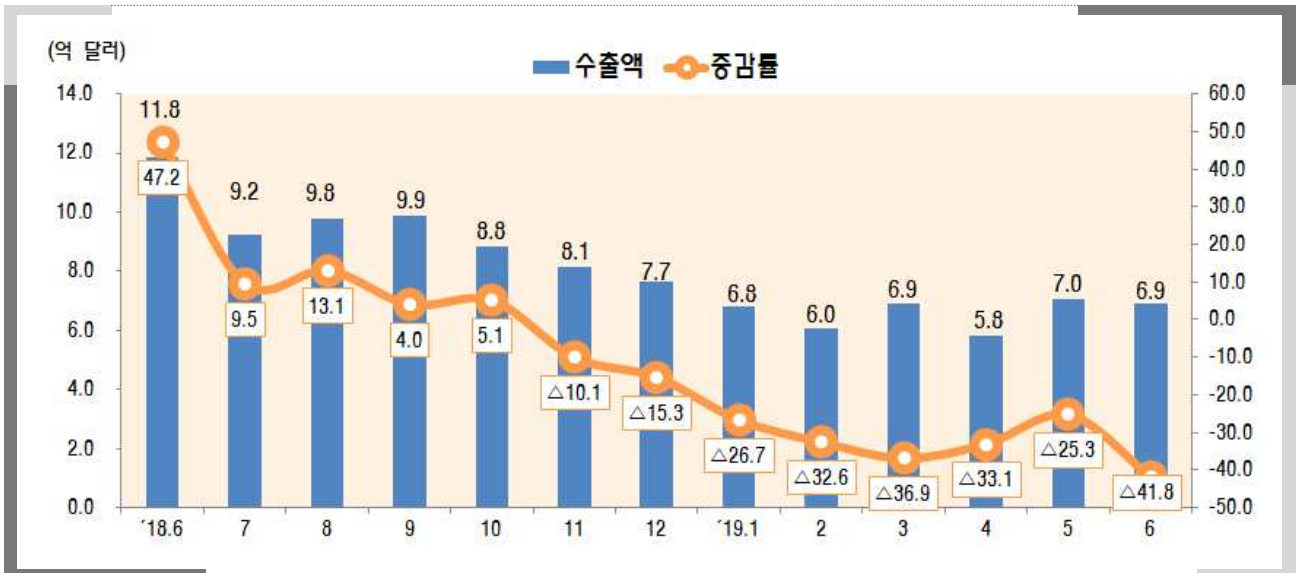
- **(품목별)** 컴퓨터 부품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변기기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액은 7억 달러를 하회
 - (컴퓨터 : 1.5억 달러, 31.4%↑) 데스크톱·노트북 등의 완제품, 주기억장치(RAM) 등 부품(1.1억 달러, 56.1%↑) 수요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수출은 성장세
 - (주변기기 : 5.4억 달러, △49.7%) 낸드 플래시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SSD(3.7억 달러, △56.3%)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변기기 수출도 감소
- **(지역별)**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신흥국인 태국은 급성장세가 관측
 - 중국(홍콩포함, 2.8억 달러, △45.9%)으로의 컴퓨터 수출(1.0억 달러, 58.9%↑)은 성장세가 지속되나 비중이 큰 주변기기(1.8억 달러, △60.6%)의 하락세로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 미국(1.8억 달러, △44.0%)도 컴퓨터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주변기기(1.7억 달러, △46.0%)의 감소세로 전체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하락세
 - 무역전쟁에 의해 해외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국(0.1억 달러, 428.4%↑)은 보조기억장치 (0.1억 달러, 1,541.1%↑)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02.10월 이후 사상 최대 성장률(428.4%) 달성

표 1-1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6	7	8	9	10	11	12	'19.1	2	3	4	5	6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8 (47.2)	9.2 (95)	9.8 (131)	9.9 (40)	8.8 (51)	8.1 (△10.1)	7.7 (△15.3)	6.8 (△26.7)	6.0 (△32.6)	6.9 (△36.9)	5.8 (△33.1)	7.0 (△25.3)	6.9 (△41.8)	39.5 (△33.3)
컴퓨터	1.2 (13.9)	1.0 (3.7)	1.2 (29.1)	1.1 (12.1)	1.4 (56.0)	2.3 (128.3)	2.3 (82.4)	1.9 (81.3)	1.6 (92.3)	1.9 (72.0)	1.6 (59.3)	1.7 (78.7)	1.5 (31.4)	10.2 (67.5)
부품	0.7 (△4.4)	0.8 (8.1)	0.8 (17.0)	0.8 (17.2)	1.0 (60.5)	1.9 (171.0)	1.7 (112.9)	1.5 (105.4)	1.3 (140.1)	1.4 (96.7)	1.3 (111.9)	1.4 (105.1)	1.1 (56.1)	8.1 (100.6)
주변기기	10.7 (52.1)	8.2 (10.3)	8.6 (11.2)	8.8 (31)	7.4 (△0.8)	5.8 (△27.6)	5.4 (△31.1)	4.9 (△40.4)	4.4 (△45.5)	5.1 (△48.8)	4.2 (△45.2)	5.3 (△37.1)	5.4 (△49.7)	29.3 (△44.8)
보조기 역장치	8.6 (74.8)	5.9 (6.9)	5.8 (0.1)	6.4 (9.8)	5.3 (△7.1)	3.9 (△34.3)	3.4 (△39.5)	3.0 (△52.8)	3.1 (△51.8)	3.1 (△60.4)	2.4 (△59.4)	3.7 (△42.4)	3.9 (△55.0)	19.1 (△53.8)
프린터	0.5 (△19.5)	0.5 (0.1)	0.5 (1.4)	0.5 (△48.7)	0.5 (23.1)	0.5 (△8.8)	0.4 (△13.8)	0.4 (8.1)	0.3 (△7.0)	0.4 (△3.8)	0.4 (△7.5)	0.4 (△18.7)	0.3 (△27.3)	2.3 (△9.9)
모니터	1.0 (11.8)	1.0 (6.1)	1.0 (5.8)	0.8 (△26.9)	1.1 (36.6)	0.9 (△11.9)	0.9 (2.5)	1.0 (3.7)	0.6 (△29.4)	0.9 (△10.9)	0.9 (△7.4)	0.8 (△14.5)	0.8 (△25.3)	4.9 (△13.9)

자료 : IITP, KTSPI

그림 1-1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5.3	32.8	31.4	중국	2.2	-22.5	31.7	14.2	-16.2	35.8
2	미국	25.2	1.0	22.4	미국	1.8	-44.0	26.6	8.8	-41.0	22.2
3	홍콩	15.8	56.2	14.0	홍콩	0.6	-73.3	9.3	3.3	-63.1	8.4
4	멕시코	4.1	6.5	3.6	일본	0.2	-25.2	3.4	1.7	-7.7	4.2
5	일본	3.9	1.4	3.5	네덜란드	0.2	51.8	2.6	1.0	-1.3	2.5
6	독일	2.2	30.2	1.9	태국	0.1	428.4	2.2	0.3	37.2	0.8
7	네덜란드	2.1	8.0	1.8	아일랜드	0.1	-44.1	2.1	0.4	-55.0	1.1
8	아일랜드	1.7	0.6	1.5	독일	0.1	-31.7	2.0	0.8	-23.2	2.0
9	싱가포르	1.5	-3.3	1.4	오스트리아	0.1	69.4	1.5	0.6	2.8	1.6
10	체코	1.4	1.4	1.2	필리핀	0.1	-25.9	1.5	0.6	0.6	1.5

자료 : IITP, KTSPI

7 SW

1) 수출 환경

□ 글로벌 SW 시장은 5%의 성장이 기대되며 국내 시장은 3%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

○ (시장 전망) '19년 SW 시장은 전년대비 5.4% 상승한 1조 2,942억 달러 예상(IDC, '19.5월)

- 기업에서의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¹⁴⁾ 적용 확대에 따라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공공·금융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증가, IoT(사물인터넷)·VR(가상현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 증가 등으로 관련 SW 시장도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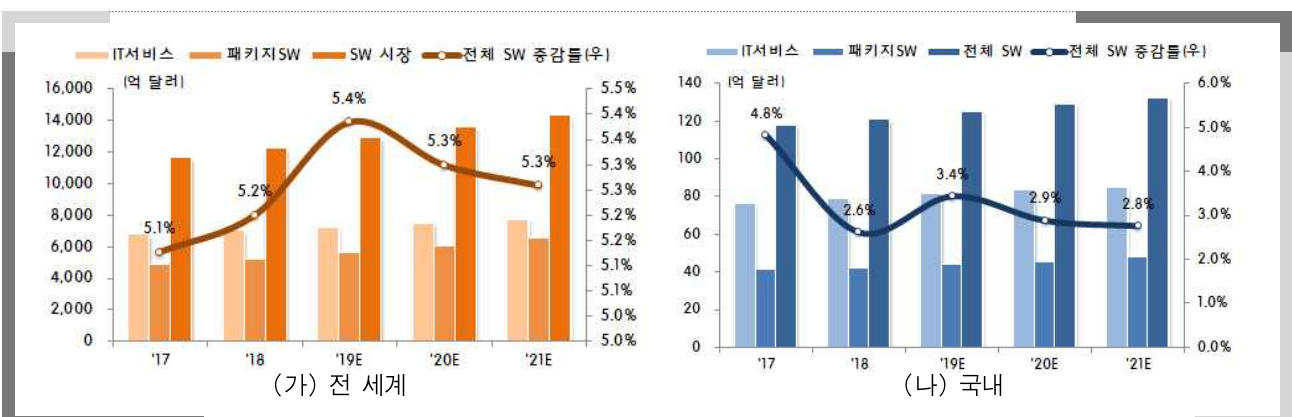
※ 전 세계 RPA 시장은 '17년 4.3억 달러→'22년 24.5억 달러(연평균 41%↑)로 성장 전망(Gartner, '18.10월)

- 패키지SW 시장은 지난해(7.7%↑)에 이어 올해(8.0%↑)도 성장세를 지속해 5,65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년에는 6,0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IT서비스는 '19년 3.5% 성장한 7,286억 달러로 패키지SW 시장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국내 시장) IT서비스와 패키지SW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SW 시장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단순 시스템구축 등 전통 IT서비스 수요는 정체하나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하며 국내 IT서비스(82억 달러, 3.0%↑)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패키지SW 시장은 전년(42억 달러, 3.7%↑) 대비 4.2% 증가한 44억 달러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그림 1-17 전 세계 및 국내 SW 시장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19.5.

14)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이고, 단순 프로그래밍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명령을 수행

□ (업체동향)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AI·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통합솔루션을 공개, 제공

- 삼성SDS는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LG CNS는 분야별 신기술 공개를, SK C&C는 클라우드를 통합한 재해복구 서비스 개발에 돌입하며 경쟁력을 강화

표 1-15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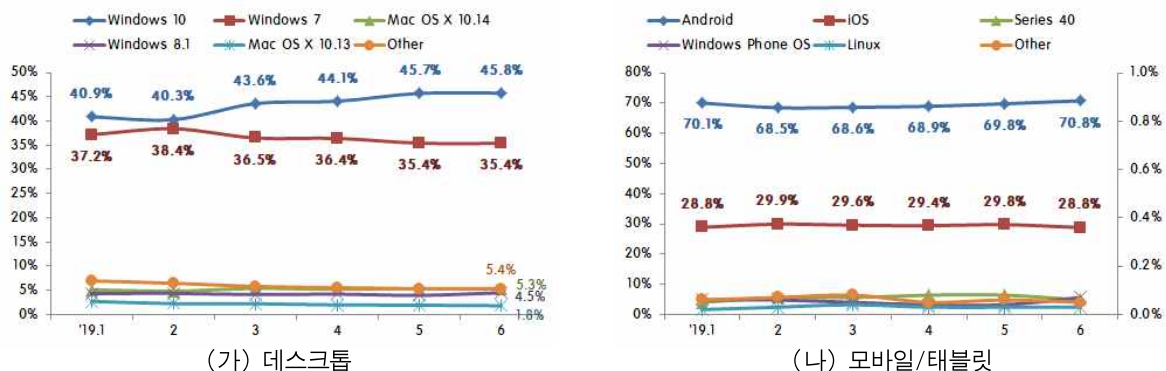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 AI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챗봇 등 제조업 지능화에 박차 - AI 기술인 '브라이틱스'15)를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넥스플랜트'로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판매 예측, 업무 자동화까지 맞춤형으로 실현해 디지털 변혁을 앞당길 계획 ※ '브라이틱스'는 '넥스플랜트'의 업종별 프로세스를 지능화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불량률을 개선 -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에 챗봇을 결합한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지능화 솔루션 '브리티웍스'16)로 AI기반 업무 지능화 사업을 확대
	• 클라우드·AI·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블록체인 등 분야별 신기술을 발표하며 경쟁력 확대 -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클라우드엑스퍼'와 AI빅데이터 플랫폼 'DAP 2.0',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공개했으며 이미지 분석 기술이 더해진 'RPA+AI' 개발
	• 기존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나로 수용하는 '온리원(Only 1) 재해복구 (DR) 센터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결정(6.24일) - SK C&C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트컨버터의 재해복구 솔루션, 아토리서치의 SW 네트워크 및 가상화 기술 플랫폼, 에스피테크놀로지의 클라우드 솔루션 등을 '클라우드Z' DRaaS에 접목할 예정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OS 시장) '19.6월 데스크톱과 모바일/태블릿은 상위 OS간 격차가 확대

- (데스크톱) 윈도우10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45.8%의 시장점유율로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윈도우7은 35.4%로 0.1%p 감소하며 양 OS간 격차는 10.4%로 확대
- (모바일/태블릿) 안드로이드는 1.0%p 증가한 70.8%를, iOS는 1.0%p 감소한 28.8%를 기록

그림 1-18 | 전 세계 OS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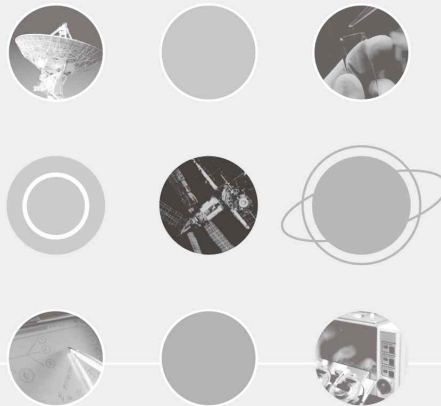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자료 : NetMarketShare, 2019.6.

15) '브라이틱스(Brightics)'는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하고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처방형 AI 분석 플랫폼
 16) '브리티웍스(Brity Works)'는 이미지 처리기술인 AIOCR(Artificial Intelligence Character Recognition)기능을 통해 각종 서류 심사, 가입 심사, 상품반납 확인 등 사람이 눈으로 실물을 확인해 검토하는 수작업 업무까지 다양하게 자동화



II

트레이드 GPS





II

트레이드 GPS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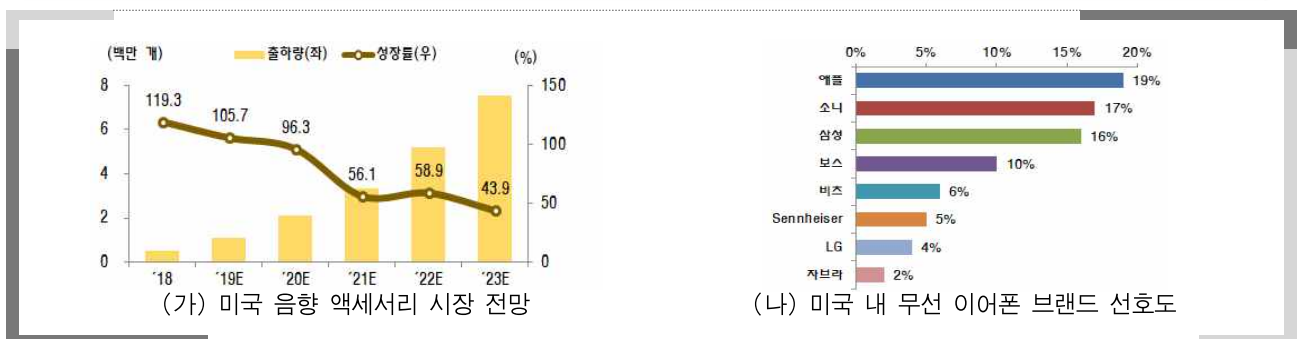
1

미국 - 음향 액세서리(무선 이어폰)

□ 에어팟 출시 이후 확대된 무선 이어폰 시장은 인공지능 탑재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기대

- (시장 전망) 글로벌 무선 이어폰 출하량은 '18년 460만 대 수준에서 '20년에는 세 배 가량 늘어난 1억 2,900만 대에 도달할 전망(카운터포인트리서치, '19.3월)
 - '16.9월 애플(美)이 이어폰 단자를 없앤 신제품 '아이폰 7'을 선보임과 동시에 블루투스 코드리스 이어폰 에어팟('Airpods')을 공개. 기존 유선 이어폰의 대체재로 독특한 디자인에 관심 증가
 - ※ 美 무선 이어폰 온라인 시장에서 비츠(24%)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에어팟 출시를 기점으로 애플(26%)이 판매량 기준 점유율 1위로 등극하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을 주도(슬라이스 인텔리전스, '16.12월)
 - 에어팟 이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미국 무선 이어폰 시장은 올해 110만 대(119.3%↑)에서 '23년 750만 대로 연평균 70.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IDC, '19.1월)
 - 美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애플) 사용자 비중('19.1분기, 출하량 기준 40%)이 높아 이와 연계된 무선 이어폰(에어팟)의 수요도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Canalys, '19.5월)
 - ※ 에어팟은 애플의 제품인 만큼 아이폰과 연동이 가장 잘 되는 점이 특징. 애플의 에어팟이 아닌 다른 무선 이어폰으로 아이폰에 연결 시 'Siri(음성명령)' 호출, 터치로 다음 곡 재생 등의 기능이 제한
- 무선 이어폰은 기존 기능 외에도 액세서리, 스마트폰 등의 역할로 확대돼 성장 가속화가 기대
 - 이어폰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패션 액세서리로도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스타일·실용성을 고려한 주문 제작 이어폰 수요(순금, 다이아 장식 등)가 증가하는 상황

그림 2-1 미국 음향 액세서리 시장 전망 및 무선 이어폰 브랜드 선호도



자료 : IDC, 2019.1. / Counterpoint Research, 2019.3.

17)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또한 차후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동시통역, 청력 보완, 방수, 건강 체크 센서 기능 등이 탑재될 것이고 특히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등 보이스 기능과 결합하며 무선 이어폰이 현재의 스마트폰 역할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도 기대

□ 업체들은 AI 음성인식 기능 결합,音质 개선 등에 집중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美 ‘에어팟’에 이어 기능이 개선된 신제품 출시, SW 추가 업데이트 등으로 각축전 진행
 - (애플) ‘에어팟 1세대’에 이어 ‘에어팟 2세대’를 공개(3.20일). 독자 칩셋인 H1칩을 탑재해 활성화된 기기 간 전환 속도는 최대 2배, 통화 연결 시간은 최대 1.5배가 빨라진 점이 특징
 - 또한 소음 환경에서도 높은 통화 품질 유지, 시리(Siri) 음성 호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작 대비 일부 기능 업그레이드 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시장 반응이 대다수
 - (삼성전자) ‘에어팟’과 달리 인이어(In-ear) 무선 이어폰으로 귀에 딱 맞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 ‘갤럭시 버즈’를 공개(3.8일). 갤럭시S10의 무선배터리 공유 기능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충전도 가능
 -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6.26일)를 통해 주변소리 듣기 오류 개선, 스트리밍 품질 개선, 배터리 잔량 표시법 변경, ‘빅스비’를 통한 컨트롤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새롭게 추가
- 후발주자 업체들도 인공지능 등을 접목시켜 신제품 개발에 주력 중인 상황
 - (아마존)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를 호출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을 올 하반기 내에 출시할 예정. 아마존 내 제품 구매, 제스처 컨트롤 기능 등을 탑재할 계획
 - 후발주자인 만큼 높은 ‘에어팟’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해 가성비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
 - (마이크로소프트) 무선 이어폰 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피스 버즈(가칭)’를 개발 중인 상황. 에어팟과 마찬가지로 MS(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음성 어시스턴트 서비스인 ‘코타나’를 탑재하고 노이즈 캔슬링¹⁸⁾ 기능 등도 포함할 예정

표 2-1 무선 이어폰 비교 및 제품별 이미지

구분	에어팟 2세대	갤럭시 버즈
제조사	애플	삼성전자
크기	18.0×16.5×40.5mm	17.5×19.2×22.3mm
무게	4g(개별)	5.6g(개별)
배터리	통화 시간 : 3시간 음악 재생 : 5시간	통화 시간 : 5시간 음악 재생 : 6시간
가격	기본 충전 케이스 19만 9,000원	15만 9,500원
	무선 충전 케이스 24만 9,000원	

(가) 무선 이어폰 비교



(나) 에어팟 2세대(애플)



(다) 갤럭시 버즈(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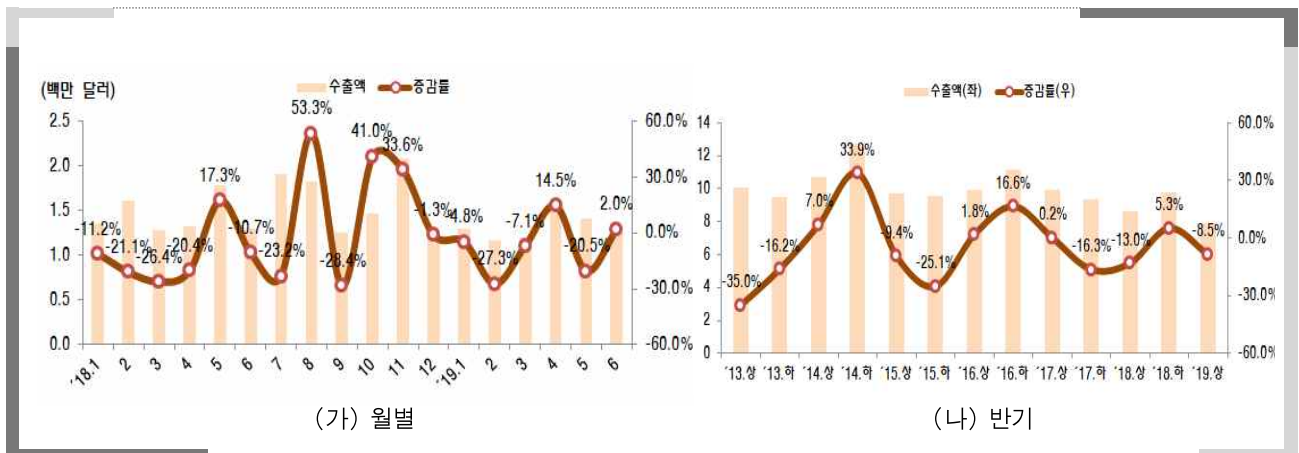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18) 버스나 지하철 등의 소음 속에서도 기기에 내장된 소음 조절기가 외부 소음을 감소시켜 음악 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능

□ (수출 동향) 對美 음향 액세서리 수출은 '19.6월 증가세로 재진입해 하반기 상승세가 기대

- 국내 업체가 미국社에 대응하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 내 성장 가능성이 기대
- 월별 수출은 '18.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19.4월 국내 업체의 신제품 출시로 반짝 상승. '19.6월 다시 2.0% 증가한 13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재진입
- 반기별로는 '18.하반기에는 5.3% 늘어난 864만 달러로 상승 반등을 보였으나 '19.상반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8.5% 감소한 790만 달러를 기록. 하지만 하반기에 신제품 효과가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기대

그림 2-2 | 對미국 음향 액세서리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2 | 對미국 음향 액세서리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6	7	8	9	10	11	12	'19.1	2	3	4	5	6
음향 액세서리	1.3 (△10.7)	1.9 (△23.2)	1.8 (53.3)	1.3 (△28.4)	1.5 (41.0)	2.1 (33.6)	1.3 (△1.3)	1.3 (△4.8)	1.2 (△7.3)	1.2 (△7.1)	1.5 (14.5)	1.4 (△20.5)	1.3 (2.0)

자료 : IITP, KTSPI

2 PCB

□ (시장 수요) 세계 PCB 시장은 성장이 둔화했으나 스마트폰의 5G·폴더블 등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서 전자부품 채용 증가 등은 PCB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

- (PCB 시장) 세계 PCB 시장은 수요 둔화로 정체하는 상황(KPCA, '19.5월)
 - '18년 세계 전자회로기판 시장은 588억 달러로 전년대비 0.5% 감소. 한국·중국·일본·대만이 전세계 PCB 생산의 82.1%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3위를 기록
 - ※ '18년 지역별 PCB 생산 비중 : (중국) 47.2%, (대만) 13.2%, (한국) 13.1%, (일본) 8.6%
 - 스마트폰의 성장 정체 지속, 전년대비 메모리반도체 생산 감소 등으로 '19년 PCB 국내 생산 및 수출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SLP¹⁹⁾ 시장은 '18년 11억 달러에서 연평균 15.6% 성장해 '24년에는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Markets&Markets, '19.1월)
 - ※ 주요 OEM 업체의 SLP 채택률이 높아지고 스마트 소비 가전 및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SLP의 잠재적 효과가 기판과 같은 PCB 시장의 성장을 주도
- (5G 서비스) 5G 시장 개화로 모바일 및 통신장비용 PCB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5G 시장은 '19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24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하며 빠르게 확대 (에릭슨 모빌리티)되며, 5G 스마트폰은 '23년까지 5억 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전망(IHS마킷)
 - 초고주파를 사용하는 5G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고정밀도 설계가 필요하며 안테나·배터리 등 스마트폰 사양도 향상되는 상황
 - ※ 5G는 다운로드 속도가 최저 100Mbps~ 최대 20Gbps로 LTE와 비교하면 속도가 20배 내외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 많으며 스마트폰에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39GHz(mmWave) 대역의 초고주파를 사용

그림 2-3 | PCB 및 SLP 시장 전망과 SLP 적용에 따른 배터리 디자인 변화



자료 : KPCA, 2019.5. / Markets&Markets, 2019.1. / J.P.Morgan

19) SLP(Substrate Like PCB): 반도체 기판과 닮은 PCB로, 반도체 PCB 생산 기술인 mSAP(Modified Semi Addictive Process)를 기반으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고밀도 다층 기판



- 전송속도가 빠른 5G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지국에 설치한 통신 장비용 초고다층 기판은 국내 기판 제조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단말기용 FPCB 안테나에도 고사양의 FPCB 수요가 증가

○ **(5G 안테나)** 5G 통신 도입에 따른 초고주파 대역을 송수신을 위해 FPCB 안테나가 주목

- 기존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되던 구리와 니켈로 도금한 LDS 안테나는 플라스틱 사출물에 레이저를 이용해 만들어지면서 고주파수 대응이 어려워 다른 안테나로 대체가 불가피할 전망
 - ※ 5G 규격에서는 하나의 기판에 안테나 회로를 더 많이 넣어야 하고, 주파수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 안테나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안테나 크기가 더 작아져야 하나 LDS는 패턴을 얇게 그리는 데 한계
- FPCB 안테나는 FPCB에 안테나 패턴을 형성해 전기적 특성을 구현한 제품으로 중저가 제품에 적용됐으나 성능 향상으로 정보 수용량 확대, 고주파수 대응, 초박형 제작이 가능해 5G용 안테나로 다시 각광
- 애플은 '17년 모델인 '아이폰X'부터 FPCB 안테나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도 PI필름을 사용한 FPCB 안테나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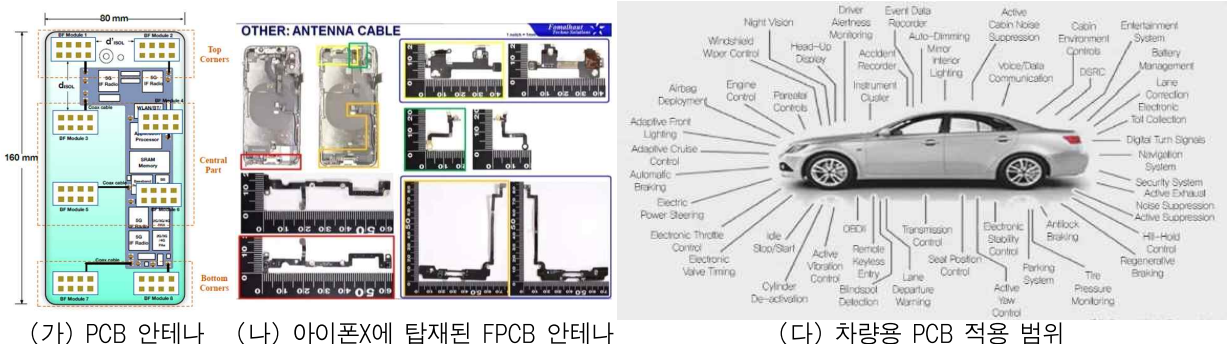
○ **(스마트폰 고사양화)** 트리플 카메라로 카메라모듈용 R/F PCB 가격 상승, 폴더블폰 등 스마트폰 스펙 향상으로 RFPCB 등 고사양 FPCB 수요 확대

- 기존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두 배 커지는 폴더폰은 기판 면적도 두 배가 되면서 기판업체는 물론 화질과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 업체도 활기
- 그러나 프리미엄 폰으로 출시되면서 높은 단가로 인해 판매량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 판매량이 많아진다면 전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력도 가지고 있어 관심 집중
- 멀티/3D센싱 카메라, 홍채/지문 인식 센서 등 각종 부품의 증가 및 고사양화로 FPCB 수요 증가

○ **(기타)**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증가에 따른 차량용 PCB 시장 확대가 기대

- 차량용 PCB는 현재 차량 내부 대당 2~6개 수준으로 장착되고 있으나 향후 자율주행이라는 화두와 함께 대당 20개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2-4 PCB 안테나 및 차량용 PCB 적용 범위



자료 : / Fomalhaut, 메리츠증권증권 재인용 / Clemson Vehicular Electronics Laboratory

□ (국내 업체) 시장의 영향으로 1분기는 부진, 그러나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대

- '19.1분기 국내 주요 PCB 업체 실적은 반도체·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 부진으로 대체로 역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파악
- 선두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그러나 LG전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익이 확대
- 대덕전자는 대덕GDS와의 합병으로 실적이 급증했으며 2분기에도 5G서비스 확대에 고성장을 예상

표 2-3 1분기 국내 PCB 업체 실적 비교

구분	매출(억 원)			영업이익(억 원)			
	'18.1분기	'19.1분기	증감률	'18.1분기	'19.1분기	손익 차	
삼성전자	3,678	3,489	-5.1%	-300	-791	-491	손실확대
LG이노텍	2,622	2,569	-2.0%	188	228	40	이익확대
대덕전자	1,425	2,481	74.0%	93	99	6	이익확대
신태	1,956	1,763	-9.9%	54	-59	-113	적자전환
영풍전자	937	1,209	28.9%	-9	34	43	흑자전환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디일렉 재인용, 2019.5.

- 국내 업체는 5G 시장향 제품 및 다층제품, 전장용 제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

표 2-4 국내 PCB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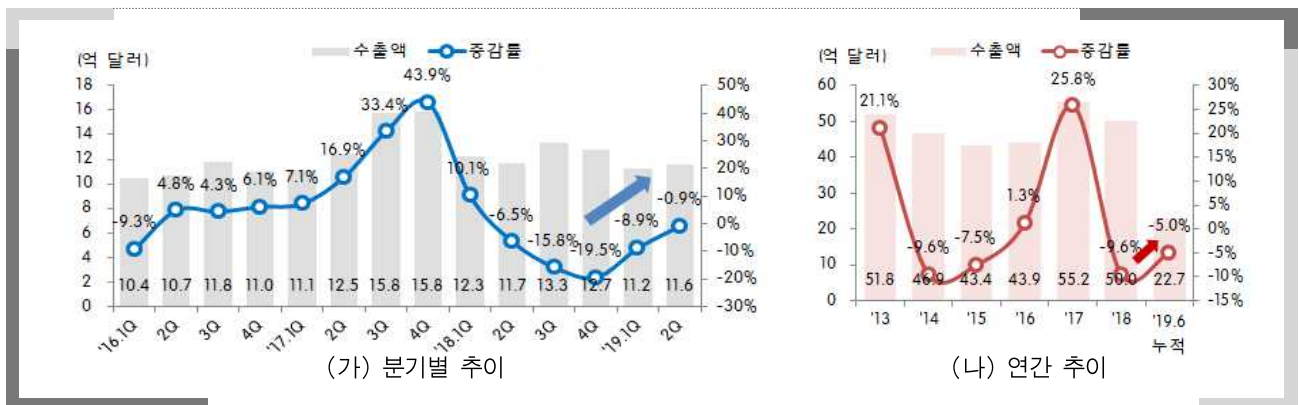
업체명	내용
 DAEDUCK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기기 등 분야에서 첨단 PCB를 공급. 5G 개화에 따른 PCB 공급업체로 부각 -'19년 5G 관련 인프라 투자에서 증가하는 통신장비용, 반도체용, 연성, 전장용 PCB 수요에 대비해 종합 PCB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확보 -또한 5G·AI·자율주행 등으로 반도체(D램) 수요의 확대에 반도체용 PCB 제품의 반사이익이 예상 -5G 투자 확대에 통신장비용 MLB(Multi-Layer Board) 매출 성장과 5G 모델을 장착한 스마트폰 시장 개화로 SLP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
 ISU 이수퍼텍스트	•초고다층 MLB 부문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 PCB 난이도 상승으로 경쟁력이 부각 -MIMO향 고층 MLB 납품을 시작했으며, 트랜시버와 파워앰프 결합, 기지국내 부품 통폐합 등 PCB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TKC GLOBAL TECHNOLOGY	•자동차용 PCB 등 선행기술 및 양산화를 통해 주요 시장 선점. 고부가 제품 등 기술 개발 진행 -고주파 본딩(고정밀 카메라를 이용한 전층 접합)과 LIVET(층간고정) 기술 기반 제품으로 전장화의 수혜가 예상. 전기차·수소전기차용 차량용 PCB부품 및 정션박스 수요 증가 기대 -차량용 PCB관련 공정 인하우스화에 이어 도금제조 설비까지 보유하여 수직계열화에 성공 -'19년 25W Trans PCB개발에 성공해 국내 독점생산 중이며 신규 아이템 개발도 진행 -'19년 5G 상용화에 따른 광전송장비 고객사 매출 증가로 통신용 제품 매출 증가가 기대 ※통신용 PCB 매출 : ('16) 4.8억 원, ('17) 3.7억 원, ('18) 4.9억 원, ('19e) 5.5억 원
 BHflex (주)비에이치	•Y-옥타 방식의 디스플레이 채택이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 확보했으며, 폴더블폰용 공급도 시작 -삼성전자 등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Y-옥타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 비에이치 FPCB 공급을 시작. 북미 최대 스마트폰 업체도 하반기부터 Y-옥타를 채택할 전망으로 수요 확대 기대 -또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신제품 선행개발을 함께하면서 출시될 폴더블폰에도 PCB를 공급 ※국내 디스플레이 FPCB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은 약 57%로 1위

자료 : 각 사, 언론 보도 재인용

□ (수출 동향) 회복세가 관측되는 반면 베트남·대만향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

- (전체) PCB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락폭이 둔화되며 회복기조가 관측
 -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향 수출이 감소하면서 '18.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18.4분기 19.5%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되는 추세
 - '17년 듀얼카메라 등으로 PCB 시장이 호황을 기록하면서 55.2억 달러를 달성했으나 이후 모바일 및 반도체 실적이 둔화되면서 정체 하고 있는 상황, '19.6월 감소폭이 둔화됐으며, 5G-폴더블 스마트폰 활성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개선 등으로 '20년 이후 성장세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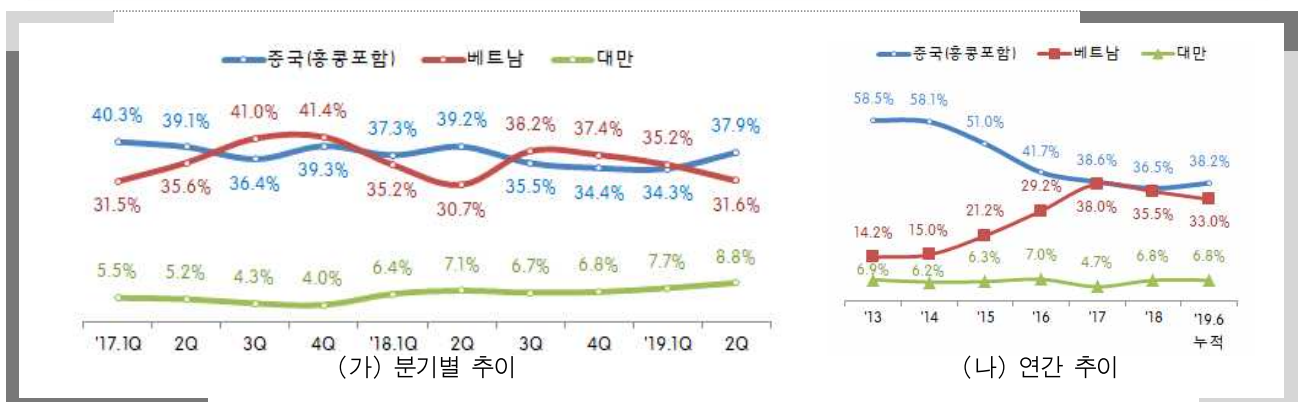
그림 2-5 PCB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중국·베트남 등 해외 생산거점 비중이 70%를 차지, 대만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
 - 중국(홍콩 포함, 4.4억 달러, △4.1%)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최대 수출국으로 재부상
 - 베트남(3.7억 달러, 2.1%↑)은 국내 세트업체의 5G-폴더블 스마트폰 생산 등 PCB 수요 확대로 2분기 연속 상승세.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다시 확대될 전망
 - 대만(1.0억 달러, 23.1%↑)은 '18.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하며 비중 확대('18.1Q 6.4%→'19.2Q 8.8%)

그림 2-6 중국/베트남/대만 PCB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정책으로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

- 7.4일부터 일본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를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심사 대상으로 전환
 - 개별심사는 최대 90일(일반적으로 20~30일)이 소요돼 대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 ※ 공급 차질로 3분기 반도체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할 경우 올해 한국 GDP는 0.19%p 하락 예상, 공급 문제가 장기화돼 하반기 지속되거나 자동차·기계·철강 등 여타 산업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GDP는 0.4~0.8%p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정(하나금융투자, '19.7월)

▶ 현재 폴리이미드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상황
 ▶ EUV 포토레지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 미세공정에 사용돼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인 D램 생산량에 영향은 낮은 상황
 ▶ 불화수소는 일부 물량은 확보했으나 D램과 디스플레이 제조에 모두 필요한 반면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대책 마련이 필요

- 7.12일 한국과 일본의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²⁰⁾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상황
 -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수출 통제 목록 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1,700여 개(군사용 제외 시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공급차질이 발생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기계·정밀화학·디스플레이 산업 등으로 손실이 확대될 우려

표 2-5 일본 수출 규제 타임라인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

일자	일본	한국
7.1일	반도체 생산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발표	
7.4일	한국 수출 규제 시행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EC) 상임위 개최
7.12일	양국 과장급 회의(한국 산업자원통상부, 일본 경제산업성)	
7.1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일본이 제안한 제 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국 답변 시한	
7.21일	참의원 선거	
7.23-24일	WTO 일반이사회(이번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	
7.24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마감	
8월 중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 결정	

(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타임라인

포괄허가

수출제품

원칙상 3년은 허가 불필요

한국은 개별허가로

-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가
- 제품의 사용 목적
- 적절인가
- 평화,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가
- 수출대상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가 등

개별허가

수출허가 신청

↓

경제산업성 심사

↓

허가, 불허 판단

수출

(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한국 수출 절차

자료 : KTB투자증권 재인용, 2019.7.

20)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첨단기술 등 전략물자를 해당국에 수출할 때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국가 목록으로,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 독일 등 총 27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



표 2-6

일본의 수출통제 목록 : 무기류 제외할 경우 1,100여 개 품목

규제 분류		세부 품목
1항	무기	총기 및 총탄, 폭발물, 화약류 또는 군용연료, 지향성 에너지 무기, 운동 에너지 무기, 군용차량 및 가설교량, 군용 항공기, 군용 선박, 어뢰방어망, 장갑판, 군용 헬멧 및 방탄의류, 군용 탐조등, 군용 생화학무기, 군용 화약류 제조시 설 및 장치, 무기 제조용 장비 및 시험 장치, 군사위성 등
2항	원자력	핵연료물질, 원자로 및 부속장치, 중수소, 인조흑연, 방사선 조사물질, 핵연료 분리재생 장비, 리튬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시설, 주파수 변환·발생기, 니켈 분말 및 다공성금속, 중수소 제조 장비, 우라늄·플루토늄 생산용 장치, 회전 성형기, 핵무기 개발·생산용 공작기계 및 측정장치 등
3-1항	화학무기	군용 화학 작용제 원료, 제조장비, 제조장비 수리용 조립품 및 부품
3-2항	생물무기	군용 박테리아 생물작용제 원료용 독소, 생물작용제 개발·제조·살포용 장치
4항	미사일	로켓·무인항공기 또는 그 생산용 장비, 다단 로켓의 재진입 기계 또는 부분품 유도·방향제어 장치, 추진장치, 유도 성형기, 추진제 제어장치, 추진제 및 생산용 장비·공구·시험장치, 연속·배치식 혼합기 등
5항	첨단소재	*불소화합물(불화수소), *폴리이미드 , 합금 초소성 성형 및 확산접합 공구, 합금 생산용 장비, 금속자성재료, 우라늄-티타늄 합 금, 텅스텐 합금, 초전도 재료, 윤활제 재료, 진동방지용 액체, 냉매용 액체, 세라믹 분말, 탄소섬유 등
6항	소재가공	베어링, 수치제어 공작기계, 기어제조용 기계, 정수압프레스, 코팅장치, 치수측정 장치, 방폭·방사선·초고도용 로 붓, 복합회전 기계
7항	전자	집적회로, 마이크로파 장비, 신호처리 장치, 초전도재료 이용장치, 전지, 고전압용 콘덴서, 인코더, 사이리스터 장치, 전력제어 소자모듈, 광 변조기, 디지털 변환 기록장치, 신호발생기, 주파수 네트워크 분석기, 반도체 기판, *레지스트
8항	전자컴퓨터	컴퓨터 및 부속장치
9항	통신	통신 장치, 전자식 교환기, 광섬유, 위성 안테나, 관련 설계·측정장비, 암호화 장치, 도청방지 장치
10항	센서	수중탐지장치, 광 검출기, 센서용 광섬유, 전자식 카메라, 반사경, 광학부품 및 제어장치, 비구면 광학소자, 레이저 발진기, 광탐지 장비, 중력측정기, 레이더, 반사율 측정장치, 중력계 생산장비
11항	항법 장치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관성 항법장치, 음파탐지기, 항법 시험교정장치
12항	해양 관련	잠수정, 선박부품, 수중 회수·조명 장치, 수중 로봇, 대기차단 동력장치, 회류 수조, 부력재, 잠수 기어, 초음파 장치
13항	추진 장치	가스터빈 엔진, 우주개발용 비행체·제어장비, 로켓 추진장치, 무인항공기, 관련 시험·측정 장비
14항	기타	분말형태 금속연료, 화약, 디젤엔진, 항공기 수송용 토목기계, 자급식 잠수용구, 전기제동 서터, 최루제, 간이 폭발장치, 폭발물 식별장치
15항	민감 품목	무기섬유, 전파흡수재료 및 전도성 고분자, 핵 열원 물질, 디지털 전송장치 및 관련 부품, 선박 방음장치 등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하나금융투자 재인용, 2019.7월

주 : *표시는 7.4일부터 수출제한이 시작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3개 소재

□ 국내 정부 및 업체는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한 강구책 마련에 총력

- 일본의 소재 수출 제재 속에 정부는 핵심 기술·재료 국산화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에 착수(7.2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 및 화학공정과 관련된 국산화 R&D 방안을 검토. 추후 로드맵에 기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

- 이는 일본의 첨단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국내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재료·장비·부품 국산화와 함께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 한편 한국의 요청으로 7.23~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공방전
 -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는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7.24일 정식 의제로 논의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對한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으로 WTO 기반의 다자 무역질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일본의 조치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넘어 전 세계 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고 양국 간 1대1 협의를 제안
 -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협의 제안을 거절
- 한편 일본 정부의 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생산라인 확대를 검토
 -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 현지에 추가 투자할지 여부와 대상 분야, 이로 인한 이해득실 등을 점검
 -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으로 향하는 물량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피신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
 - 다만 현지 공장 건설은 자금 상황을 비롯해 제품 수요, 업황 전망, 기술 유출 가능성, 현지 상황 등 여러 변수를 참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중 간 무역 협상 재개 합의 이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로 다시 갈등이 심화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대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갈등 해소 분위기가 조성
 - 트럼프 대통령은 6.29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유예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를 시사
 - 더불어 미국과 중국은 5월 이후 중단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
 - 7.9일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에 라이선스를 발급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화웨이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화웨이 제재와 농산물 문제를 놓고 양국이 다시 교착상태에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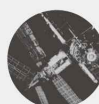


- (미국) 미국 의회가 화웨이 제재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면 강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의사를 표명하면서 중국을 압박
- 미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7.16일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의 미래 수호 법안’을 상원에 제출. 법안에 따르면 화웨이를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서 삭제 시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미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 미국 하원도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의회의 조치는 화웨이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해지는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최종 무역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총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면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로이터통신, 7.16일)
- (중국) 농산물 구매 문제를 놓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강경파를 합류시키면서 장기전에 대비
- 중국 상무부는 강경파 중산 상무부장을 협상 대표팀에 합류시킨 데 이어, 중산 상무부장이 막심 오래슈킨 러시아 경제 개발부 장관과 만나 대두(콩)를 포함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을 강화
 - ※ 6월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18년 1,070억 달러를 기록했던 교역 규모를 연간 2,0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양국간 농산물 거래 강화가 교역규모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시사
- 또한 중산 상무부장은 7.15일 전투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 우리 국가와 인민의 이익뿐 아니라 다자적 무역 시스템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거나 미국 측에 백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하며 무역협상 장기화에 대해서도 시사
-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 정상은 물론 양국 고위급 협상단의 대면 일정은 자연스레 지연
 - 양국 무역협상팀은 7.18일 전화 통화를 했으나 협상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
- 이 같은 상황 속에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관여해왔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실일 경우 화웨이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
 -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화웨이는 '08년부터 '16.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운 것으로 파악
 - '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여
 - 해당 보도 내용은 미국산 부품을 쓰는 화웨이가 북한에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미국 정부가 對화웨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1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4,716,630	9.4	100.0	421,130	-5.8	100.0	4,972,994	5.4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427,552	10.9	72.7	288,084	-8.8	68.4	3,655,480	6.6	73.5
- 전자부품	2,190,080	21.9	46.4	188,131	-10.3	44.7	2,373,194	8.4	47.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3,143	14.4	2.4	7,621	-37.0	1.8	119,800	5.9	2.4
- 통신 및 방송기기	442,645	-14.3	9.4	31,255	-13.9	7.4	436,185	-1.5	8.8
- 영상 및 음향기기	99,406	-14.7	2.1	6,662	-16.5	1.6	90,244	-9.2	1.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82,277	3.9	12.3	54,415	9.5	12.9	636,057	9.2	12.8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48,828	3.0	15.9	64,270	0.0	15.3	762,231	1.8	15.3
- 통신서비스	380,211	0.0	8.1	29,888	-6.3	7.1	372,638	-2.0	7.5
· 유선통신서비스	105,830	-0.4	2.2	8,587	-3.5	2.0	103,622	-2.1	2.1
· 무선통신서비스	252,562	0.3	5.4	19,431	-8.1	4.6	246,886	-2.2	5.0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819	-1.2	0.5	1,871	1.7	0.4	22,130	1.4	0.4
- 방송서비스	175,707	3.4	3.7	16,378	4.5	3.9	183,588	4.5	3.7
· 지상파방송서비스	36,952	-7.8	0.8	3,226	-2.4	0.8	35,674	-3.5	0.7
· 유료방송서비스	56,332	9.1	1.2	5,473	10.9	1.3	62,655	11.2	1.3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81,888	5.6	1.7	7,637	3.4	1.8	84,749	3.5	1.7
- 정보서비스	192,910	9.0	4.1	18,004	7.6	4.3	206,005	6.8	4.1
· 정보인프라서비스	36,782	4.2	0.8	3,378	6.5	0.8	38,488	4.6	0.8
· 정보매개서비스	38,949	25.0	0.8	3,963	10.7	0.9	45,377	16.5	0.9
· 정보제공서비스	117,179	6.1	2.5	10,663	6.9	2.5	122,140	4.2	2.5
○ 소프트웨어	540,251	9.5	11.5	68,776	2.8	16.3	555,283	2.8	11.2
- 패키지 소프트웨어	88,520	17.1	1.9	12,516	11.3	3.0	94,505	6.8	1.9
- 게임 소프트웨어	114,365	14.1	2.4	12,161	3.0	2.9	121,004	5.8	2.4
- IT 서비스	337,366	6.2	7.2	44,099	0.5	10.5	339,774	0.7	6.8

자료 : KEA, KAIT, 2019.5.

2 2019년 6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년	5,478.7	1,552.4	-0.9	5,195.8	779.5	-4.4	282.9	772.8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1/4분기	1,450.5	523.1	18.9	1,324.3	262.4	10.3	126.3	260.7
2/4분기	1,516.2	546.4	16.7	1,331.5	260.3	5.0	184.6	286.1
3/4분기	1,536.4	590.0	12.5	1,303.1	257.5	-0.7	233.3	332.5
4/4분기	1,545.5	543.9	0.2	1,393.1	291.0	5.6	152.3	253.0
상반기	2,966.7	1,069.5	17.7	2,655.8	522.7	7.6	310.9	546.8
하반기	3,081.9	1,133.9	6.2	2,696.2	548.5	2.5	385.6	585.4
1월	492.2	176.9	28.0	458.1	93.4	19.7	34.2	83.5
2월	445.2	156.8	11.6	417.2	78.3	7.1	28.0	78.5
3월	513.1	189.4	17.4	449.0	90.6	4.6	64.1	98.7
4월	498.5	170.3	9.6	436.9	86.7	9.9	61.6	83.6
5월	506.9	185.0	20.1	444.6	87.4	9.0	62.3	97.6
6월	510.8	191.2	20.3	450.0	86.3	-2.9	60.8	104.9
7월	518.1	185.5	18.2	449.2	91.1	9.9	68.9	94.5
8월	511.8	201.7	15.4	443.6	86.6	0.6	68.2	115.1
9월	506.5	202.7	5.3	410.3	79.9	-11.7	96.2	122.8
10월	548.6	201.9	12.2	484.8	100.3	10.2	63.8	101.6
11월	514.8	182.9	-1.7	468.1	97.7	3.0	46.7	85.2
12월	482.1	159.1	-10.1	440.2	93.0	3.6	41.8	66.1
2019년	2,715.5	872.7	-18.4	2,520.0	536.1	2.6	195.5	336.6
1/4분기	1,326.7	429.3	-17.9	1,234.7	258.9	-1.3	92.1	170.4
2/4분기	1,388.8	443.4	-18.9	1,285.3	277.1	6.5	103.4	166.3
상반기	2,715.5	872.7	-18.4	2,520.0	536.1	2.6	195.5	336.6
1월	461.8	144.4	-18.4	450.4	94.1	0.7	11.4	50.3
2월	394.8	126.7	-19.2	365.0	72.9	-6.9	29.8	53.8
3월	470.1	158.3	-16.4	419.3	92.0	1.5	50.9	66.3
4월	488.1	152.0	-10.8	448.9	94.8	9.4	39.3	57.1
5월	458.9	143.1	-22.6	436.4	96.8	10.8	22.5	46.3
6월	441.8	148.3	-22.4	400.1	85.5	-0.9	41.7	62.8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0,340	11.5	100.0	14,835	-22.4	100.0	87,271	-18.4	100.0
○전자부품	166,047	18.3	75.4	10,766	-24.4	72.6	63,062	-20.8	72.3
- 반도체	128,145	28.6	58.2	8,410	-25.3	56.7	48,147	-22.4	55.2
· 메모리반도체	94,078	40.1	42.7	5,903	-30.6	39.8	32,839	-27.2	37.6
· 시스템반도체	26,466	4.4	12.0	2,003	-4.8	13.5	11,994	-7.8	13.7
- 디스플레이	27,760	-8.4	12.6	1,590	-26.6	10.7	10,203	-19.5	11.7
- 전자관	7	11.9	0.0	0	-27.3	0.0	3	-1.2	0.0
- 수동부품	2,049	10.9	0.9	158	-7.9	1.1	959	-0.3	1.1
PCB	4,996	-9.6	2.3	371	-6.4	2.5	2,274	-5.0	2.6
- 접속부품	2,841	3.5	1.3	221	-2.9	1.5	1,373	-0.6	1.6
- 기타전자부품	180	-0.3	0.1	12	-18.5	0.1	74	-17.2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269	17.4	5.1	690	-41.8	4.6	3,952	-33.2	4.5
- 컴퓨터	1,537	23.4	0.7	153	31.4	1.0	1,020	67.5	1.2
- 주변기기	9,732	16.5	4.4	537	-49.7	3.6	2,932	-44.8	3.4
· 디스플레이장치	1,142	9.4	0.5	75	-25.3	0.5	495	-13.9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538	-17.3	0.2	33	-27.3	0.2	225	-9.9	0.3
· 보조기억장치	7,205	19.9	3.3	386	-55.0	2.6	1,911	-53.8	2.2
○통신 및 방송기기	17,576	-22.3	8.0	1,171	-23.7	7.9	6,795	-24.2	7.8
- 통신기기	17,150	-23.0	7.8	1,143	-24.0	7.7	6,622	-24.3	7.6
· 유선통신기기	959	17.6	0.4	66	-21.8	0.4	398	-15.8	0.5
· 무선통신기기	16,191	-24.5	7.3	1,077	-24.1	7.3	6,224	-24.8	7.1
휴대폰(부분품 포함)	14,596	-23.3	6.6	990	-22.6	6.7	5,671	-23.9	6.5
- 방송용 장비	426	20.9	0.2	28	-11.7	0.2	174	-17.0	0.2
○영상 및 음향기기	3,079	-18.8	1.4	434	102.9	2.9	2,415	59.6	2.8
- 영상기기	2,059	-22.2	0.9	361	172.9	2.4	1,923	86.7	2.2
· TV	1,645	-27.3	0.7	331	238.0	2.2	1,735	112.1	2.0
LCD TV	447	-27.0	0.2	29	-20.1	0.2	212	-31.6	0.2
TV 부분품	1,026	-29.3	0.5	296	453.8	2.0	1,467	260.0	1.7
· 셋탑박스	39	-35.3	0.0	3	-4.1	0.0	11	-41.4	0.0
- 음향기기	969	-9.9	0.4	70	-10.7	0.5	472	3.2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52	-27.5	0.0	3	-3.3	0.0	20	-24.7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369	5.3	10.2	1,774	-8.9	12.0	11,046	0.8	12.7
-가정용전기기기	3,568	-17.3	1.6	292	7.2	2.0	1,826	-1.8	2.1
-사무용기기	263	11.0	0.1	20	-15.0	0.1	167	22.0	0.2
-의료용기기	2,084	8.9	0.9	191	-1.8	1.3	1,032	4.3	1.2
-전기 장비	10,433	15.0	4.7	839	0.8	5.7	5,238	6.1	6.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334	21.7	3.3	589	1.3	4.0	3,748	9.1	4.3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07,119	4.9	100.0	8,551	-0.9	100.0	53,606	2.6	100.0
○ 전자부품	58,630	7.8	54.7	4,761	-0.4	55.7	29,118	3.4	54.3
- 반도체	44,946	8.5	42.0	3,916	10.0	45.8	23,702	11.5	44.2
· 메모리반도체	16,269	32.0	15.2	1,759	53.8	20.6	10,537	53.9	19.7
· 시스템반도체	21,406	-5.0	20.0	1,564	-14.6	18.3	9,627	-11.1	18.0
- 디스플레이	6,744	10.1	6.3	302	-54.2	3.5	2,165	-39.5	4.0
- 전자관	66	-1.4	0.1	4	-7.1	0.1	23	-26.5	0.0
- 수동부품	2,047	11.8	1.9	159	-6.7	1.9	966	0.0	1.8
PCB	2,228	-7.1	2.1	178	-2.2	2.1	999	-3.8	1.9
- 접속부품	2,232	1.8	2.1	172	-2.6	2.0	1,087	-2.6	2.0
- 기타전자부품	276	5.0	0.3	24	-4.9	0.3	135	-3.4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850	8.2	12.0	755	-26.4	8.8	5,755	-16.3	10.7
- 컴퓨터	6,618	7.1	6.2	458	-1.0	5.4	3,590	3.7	6.7
- 주변기기	6,232	9.3	5.8	297	-47.3	3.5	2,165	-36.6	4.0
· 디스플레이장치	743	2.6	0.7	46	-30.0	0.5	343	-10.7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928	-9.5	0.9	70	-15.0	0.8	475	-3.3	0.9
· 보조기억장치	3,488	34.1	3.3	109	-66.7	1.3	890	-55.8	1.7
○ 통신 및 방송기기	13,914	-11.7	13.0	1,133	18.4	13.2	7,046	12.6	13.1
- 통신기기	13,636	-11.9	12.7	1,107	18.0	12.9	6,887	12.3	12.8
· 유선통신기기	1,783	3.4	1.7	191	22.6	2.2	1,066	32.0	2.0
· 무선통신기기	11,853	-13.8	11.1	916	17.1	10.7	5,821	9.3	10.9
휴대폰(부분품 포함)	10,041	-17.4	9.4	650	0.4	7.6	4,390	-3.2	8.2
- 방송용 장비	278	-2.2	0.3	26	33.1	0.3	159	29.5	0.3
○ 영상 및 음향기기	3,021	5.2	2.8	371	70.5	4.3	2,486	70.5	4.6
- 영상기기	1,461	12.1	1.4	273	171.5	3.2	1,765	164.2	3.3
· TV	941	20.9	0.9	224	324.4	2.6	1,497	266.7	2.8
LCD TV	618	-2.6	0.6	35	-17.6	0.4	314	-5.7	0.6
TV 부분품	217	202.9	0.2	185	4,707.9	2.2	1,125	3,528.2	2.1
· 셋탑박스	130	12.0	0.1	14	24.7	0.2	82	19.2	0.2
- 음향기기	1,206	-6.7	1.1	82	-17.6	1.0	577	-5.9	1.1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29.0	0.3	16	-9.3	0.2	144	-18.6	0.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8,703	9.0	17.5	1,532	-6.9	17.9	9,201	-3.3	17.2
-가정용전기기기	3,495	18.8	3.3	354	0.3	4.1	1,939	6.7	3.6
-사무용기기	36	-3.3	0.0	4	78.2	0.1	26	26.5	0.0
-의료용기기	1,945	11.7	1.8	170	-8.0	2.0	1,039	9.8	1.9
-전기 장비	5,786	16.6	5.4	406	-9.2	4.7	2,696	-10.1	5.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2,204	42.7	2.1	173	-6.2	2.0	1,127	4.3	2.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6월 당월			6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0,340	107,119	113,222	14,835	8,551	6,283	33,664
○전자부품	166,047	58,630	107,417	10,766	4,761	6,004	33,944
- 반도체	128,145	44,946	83,199	8,410	3,916	4,494	24,446
· 메모리반도체	94,078	16,269	77,809	5,903	1,759	4,143	22,302
· 시스템반도체	26,466	21,406	5,061	2,003	1,564	440	2,366
- 디스플레이	27,760	6,744	21,015	1,590	302	1,289	8,038
- 전자관	7	66	-59	0	4	-4	-20
- 수동부품	2,049	2,047	2	158	159	-1	-6
PCB	4,996	2,228	2,767	371	178	193	1,275
- 접속부품	2,841	2,232	609	221	172	48	286
- 기타전자부품	180	276	-96	12	24	-12	-6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269	12,850	-1,581	690	755	-65	-1,803
- 컴퓨터	1,537	6,618	-5,081	153	458	-305	-2,569
- 주변기기	9,732	6,232	3,500	537	297	240	767
· 디스플레이장치	1,142	743	399	75	46	30	152
· 프린터(부분품포함)	538	928	-389	33	70	-36	-249
· 보조기억장치	7,205	3,488	3,716	386	109	278	1,021
○통신 및 방송기기	17,576	13,914	3,662	1,171	1,133	39	-251
- 통신기기	17,150	13,636	3,514	1,143	1,107	37	-265
· 유선통신기기	959	1,783	-824	66	191	-125	-668
· 무선통신기기	16,191	11,853	4,338	1,077	916	161	402
휴대폰(부분품 포함)	14,596	10,041	4,555	990	650	339	1,280
- 방송용 장비	426	278	148	28	26	2	15
○영상 및 음향기기	3,079	3,021	59	434	371	63	-72
- 영상기기	2,059	1,461	597	361	273	88	158
· TV	1,645	941	705	331	224	107	238
LCD TV	447	618	-171	29	35	-6	-102
TV 부분품	1,026	217	809	296	185	111	342
· 셋탑박스	39	130	-91	3	14	-12	-71
- 음향기기	969	1,206	-238	70	82	-12	-106
- 기타 영상음향기기	52	353	-301	3	16	-13	-12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369	18,703	3,666	1,774	1,532	243	1,845
- 가정용전기기기	3,568	3,495	73	292	354	-63	-113
- 사무용기기	263	36	228	20	4	16	142
- 의료용기기	2,084	1,945	140	191	170	21	-7
- 전기 장비	10,433	5,786	4,647	839	406	433	2,54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334	2,204	5,131	589	173	416	2,62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220,340	11.5	100.0	14,835	-22.4	100.0	87,271	-18.4	100.0
○ 아시아	175,975	12.9	79.9	11,449	-24.4	77.2	67,447	-21.2	77.3
- 중국(홍콩포함)	119,353	14.4	54.2	7,411	-31.8	50.0	42,936	-27.5	49.2
- 일 본	4,342	4.2	2.0	341	-11.0	2.3	2,024	-8.5	2.3
- ASEAN	41,549	7.8	18.9	2,859	-4.0	19.3	18,199	-6.7	20.9
· 싱가포르	3,440	-7.7	1.6	201	-25.6	1.4	1,475	-16.4	1.7
· 인 니	886	16.3	0.4	62	-16.0	0.4	467	2.6	0.5
· 말 련	1,959	9.1	0.9	157	-8.2	1.1	885	-7.7	1.0
· 태 국	1,202	-13.5	0.5	98	-2.8	0.7	553	-7.6	0.6
· 베트남	27,887	8.1	12.7	2,021	7.7	13.6	12,882	1.5	14.8
- 대 만	7,670	41.7	3.5	577	-6.5	3.9	2,681	-16.9	3.1
- 인 도	2,729	-12.8	1.2	238	-12.3	1.6	1,445	10.8	1.7
○ 북미	21,628	15.0	9.8	1,616	-19.7	10.9	9,628	-2.7	11.0
- 미 국	20,541	13.2	9.3	1,542	-19.0	10.4	9,165	-2.7	10.5
- 캐나다	971	94.6	0.4	66	-34.0	0.4	416	2.6	0.5
○ 유럽	13,170	11.9	6.0	1,010	-10.9	6.8	5,885	-9.1	6.7
- EU	11,822	14.1	5.4	913	-12.0	6.2	5,329	-7.8	6.1
· 영 국	483	-21.1	0.2	78	83.7	0.5	280	10.2	0.3
· 독 일	3,398	20.4	1.5	225	-34.9	1.5	1,351	-19.8	1.5
· 프랑스	927	39.9	0.4	62	-20.6	0.4	478	8.2	0.5
· 이탈리아	319	10.0	0.1	31	-5.1	0.2	159	-4.6	0.2
- 러시아	637	-3.2	0.3	48	1.5	0.3	290	0.9	0.3
○ 중동	2,373	-30.4	1.1	150	-25.4	1.0	955	-31.5	1.1
- 사우디	282	-29.2	0.1	23	3.6	0.2	121	-22.0	0.1
- UAE	554	-39.0	0.3	32	-41.7	0.2	215	-40.3	0.2
○ 중남미	5,942	-9.4	2.7	512	-4.2	3.4	2,732	-9.4	3.1
- 브라질	1,982	-21.6	0.9	170	12.8	1.1	938	-17.4	1.1
- 멕시코	3,290	-2.8	1.5	284	-17.8	1.9	1,490	-5.6	1.7
- 칠 레	95	-12.7	0.0	6	-12.8	0.0	43	-8.5	0.0
○ 대양주	754	2.1	0.3	64	9.9	0.4	415	8.5	0.5
- 호 주	661	0.5	0.3	58	14.9	0.4	374	11.2	0.4
○ 아프리카	490	35.2	0.2	32	1.5	0.2	207	-2.1	0.2
※ 브릭스	86,960	9.2	39.5	5,564	-26.6	37.5	32,662	-23.9	37.4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07,119	4.9	100.0	8,551	-0.9	100.0	56,606	2.6	100.0
○ 아시아	87,716	5.7	81.9	7,215	1.8	84.4	43,881	2.3	81.9
- 중국(홍콩포함)	45,930	10.6	42.9	3,152	-13.6	36.9	23,124	4.9	43.1
- 일 본	10,882	-3.9	10.2	768	-16.5	9.0	4,840	-11.4	9.0
- ASEAN	18,847	7.8	17.6	1,497	-3.2	17.5	9,573	1.9	17.9
· 싱가포르	3,329	-3.8	3.1	216	-23.5	2.5	1,332	-15.9	2.5
· 인 니	421	2.1	0.4	27	-33.2	0.3	219	-6.9	0.4
· 말 련	3,389	10.1	3.2	225	-19.3	2.6	1,506	-11.5	2.8
· 태 국	1,360	-16.1	1.3	126	-7.5	1.5	653	-9.6	1.2
· 베트남	8,556	19.4	8.0	681	-1.8	8.0	4,700	6.7	8.8
- 대 만	11,940	-5.1	11.1	851	-11.9	10.0	5,345	-9.9	10.0
- 인 도	108	-7.2	0.1	6	-9.7	0.1	54	-3.7	0.1
○ 북미	8,978	-7.0	8.4	667	-8.7	7.8	4,467	-4.1	8.3
- 미 국	8,630	-7.1	8.1	644	-8.6	7.5	4,311	-3.9	8.0
- 캐나다	216	-3.3	0.2	15	-9.2	0.2	100	-3.0	0.2
○ 유럽	7,016	-2.5	6.5	554	-8.2	6.5	3,473	1.9	6.5
- EU	6,627	-1.9	6.2	523	-8.0	6.1	3,265	1.7	6.1
· 영 국	522	5.6	0.5	48	40.9	0.6	262	11.6	0.5
· 독 일	2,944	-0.8	2.7	205	-18.4	2.4	1,308	-8.8	2.4
· 프랑스	724	-3.8	0.7	68	-12.5	0.8	385	8.2	0.7
· 이탈리아	314	6.2	0.3	24	-7.7	0.3	161	10.0	0.3
- 러시아	17	-13.3	0.0	1	-23.4	0.0	8	-10.5	0.0
○ 중동	620	-1.1	0.6	34	-17.1	0.4	187	-44.6	0.3
- 사우디	2	-58.2	0.0	0	-96.8	0.0	0	-85.4	0.0
- UAE	86	-24.7	0.1	3	-56.3	0.0	30	-28.1	0.1
○ 중남미	779	1.1	0.7	65	17.0	0.8	442	20.1	0.8
- 브라질	13	-46.1	0.0	1	7.6	0.0	5	-38.2	0.0
- 멕시코	761	3.0	0.7	64	18.6	0.7	430	20.2	0.8
- 칠 레	2	13.9	0.0	0	-93.1	0.0	1	-15.2	0.0
○ 대양주	105	6.0	0.1	13	53.8	0.1	69	48.5	0.1
- 호 주	73	9.4	0.1	10	87.1	0.1	54	77.1	0.1
○ 아프리카	57	-13.8	0.1	4	8.7	0.0	26	-9.9	0.0
※ 브릭 스	44,726	10.6	41.8	3,124	-12.6	36.5	22,542	5.3	42.1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수출	수입	수지	6월 당월			1~6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0,340	107,119	113,222	14,835	8,551	6,283	33,664
○ 아시아	175,975	87,716	88,259	11,449	7,215	4,234	23,566
- 중국(홍콩포함)	119,353	45,930	73,422	7,411	3,152	4,260	19,811
- 일 본	4,342	10,882	-6,539	341	768	-426	-2,816
- ASEAN	41,549	18,847	22,702	2,859	1,497	1,362	8,626
· 싱가포르	3,440	3,329	111	201	216	-15	143
· 인 니	886	421	465	62	27	34	248
· 말 련	1,959	3,389	-1,430	157	225	-68	-621
· 태 국	1,202	1,360	-157	98	126	-28	-99
· 베트남	27,887	8,556	19,331	2,021	681	1,340	8,183
- 대 만	7,670	11,940	-4,270	577	851	-274	-2,664
- 인 도	2,729	108	2,621	238	6	232	1,391
○ 북미	21,628	8,978	12,650	1,616	667	949	5,161
- 미 국	20,541	8,630	11,911	1,542	644	898	4,854
- 캐나다	971	216	755	66	15	51	315
○ 유럽	13,170	7,016	6,154	1,010	554	456	2,413
- EU	11,822	6,627	5,195	913	523	390	2,064
· 영 국	483	522	-39	78	48	29	18
· 독 일	3,398	2,944	454	225	205	20	43
· 프랑스	927	724	202	62	68	-6	93
· 이탈리아	319	314	4	31	24	7	-3
- 러시아	637	17	620	48	1	47	281
○ 중동	2,373	620	1,754	150	34	117	768
- 사우디	282	2	280	23	0	23	120
- UAE	554	86	468	32	3	29	185
○ 중남미	5,942	779	5,163	512	65	447	2,290
- 브라질	1,982	13	1,968	170	1	170	934
- 멕시코	3,290	761	2,529	284	64	220	1,060
- 칠 레	95	2	93	6	0	6	42
○ 대양주	754	105	649	64	13	51	346
- 호 주	661	73	588	58	10	48	321
○ 아프리카	490	57	433	32	4	29	182
※ 브 릅 스	86,960	44,726	42,234	5,564	3,124	2,440	10,119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9,374	8.4	100.0	762	5.8	100.0	2,058	-0.8	100.0
○ 전자부품	2,334	15.2	24.9	206	4.5	27.1	553	4.1	26.9
- 반도체	1,622	24.5	17.3	144	5.3	19.0	390	7.3	18.9
- 디스플레이 패널	251	-17.3	2.7	24	-4.4	3.2	63	-6.3	3.1
- 전자관	1	-28.2	0.0	0	5.5	0.0	0	1.4	0.0
- 수동부품	96	14.7	1.0	7	-5.1	1.0	20	-2.1	1.0
- PCB	153	9.3	1.6	13	2.6	1.7	33	-3.2	1.6
- 접속부품	185	7.7	2.0	15	21.0	2.0	42	3.5	2.0
- 기타 전자부품	26	13.8	0.3	2	7.7	0.3	6	-5.9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99	7.4	20.3	159	0.5	20.9	417	1.5	20.2
- 컴퓨터	1,248	10.5	13.3	103	-2.3	13.5	270	1.9	13.1
- 주변기기	652	1.9	7.0	56	5.9	7.4	147	0.9	7.2
· 디스플레이장치	154	9.3	1.6	13	17.2	1.8	36	5.1	1.7
· 프린터(부품포함)	172	-2.8	1.8	14	-2.8	1.8	38	-8.5	1.8
· 보조기억장치	178	-4.8	1.9	16	-3.0	2.1	40	0.6	2.0
· 저장 매체	32	6.9	0.3	3	12.3	0.4	7	5.6	0.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16	10.6	1.2	10	19.9	1.4	26	10.4	1.3
○ 통신 및 방송기기	2,544	9.3	27.1	182	-0.3	24.0	503	-10.4	24.4
- 통신기기	2,437	9.0	26.0	175	-0.4	23.0	482	-10.5	23.4
· 유선통신기기	444	15.9	4.7	39	27.5	5.1	104	18.7	5.0
· 무선통신기기	1,993	7.5	21.3	136	-6.2	17.9	379	-16.2	18.4
- 방송국용 기기	108	17.6	1.1	7	0.4	1.0	21	-5.8	1.0
○ 영상 및 음향기기	677	-3.0	7.2	48	6.0	6.3	129	-9.2	6.3
- 영상기기	351	2.1	3.7	26	4.6	3.5	73	-5.3	3.5
- 음향기기	214	-2.6	2.3	15	3.5	2.0	41	-10.6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16.7	1.2	7	18.6	0.9	15	-21.5	0.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20	5.1	20.5	165	22.1	21.7	456	6.1	22.2
- 가정용 기기	727	10.1	7.8	65	17.7	8.6	175	5.4	8.5
- 사무용 기기	41	0.3	0.4	3	22.2	0.5	10	8.9	0.5
- 의료용 기기	92	2.8	1.0	9	29.4	1.2	24	12.3	1.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75	-1.9	1.9	16	12.3	2.1	43	2.6	2.1
- 전기 장비	885	3.3	9.4	71	28.2	9.3	204	6.5	9.9
· 건전지 및 축전지	184	24.0	2.0	17	24.9	2.2	45	13.5	2.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407	11.9	100.0	493	-6.3	100.0	1,341	-8.9	100.0
○ 전자부품	4,468	14.6	69.7	347	-6.8	70.3	940	-7.8	70.1
- 반도체	3,626	19.4	56.6	284	-5.7	57.6	763	-6.9	56.9
- 디스플레이 패널	338	-18.4	5.3	28	-11.5	5.6	80	-11.4	5.9
- 전자관	2	1.9	0.0	0	-9.1	0.0	0	-8.8	0.0
- 수동부품	178	29.8	2.8	12	-15.6	2.3	32	-12.6	2.4
- PCB	124	7.1	1.9	8	-3.7	1.6	23	-13.2	1.7
- 접속부품	195	4.2	3.0	15	-10.7	3.0	41	-9.8	3.0
- 기타 전자부품	6	-4.8	0.1	0	-14.9	0.1	1	-16.0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35	14.4	6.8	33	-4.6	6.8	95	-2.2	7.1
- 컴퓨터	47	17.4	0.7	3	-29.2	0.6	8	-18.9	0.6
- 주변기기	388	14.1	6.1	31	-1.5	6.2	87	-0.2	6.5
· 디스플레이장치	6	37.0	0.1	1	12.1	0.1	2	42.7	0.1
· 프린터(부품포함)	72	4.1	1.1	6	-2.3	1.2	16	-4.0	1.2
· 보조기억장치	225	22.3	3.5	18	-2.7	3.6	49	-0.2	3.7
· 저장 매체	45	-1.7	0.7	3	-3.6	0.6	10	-11.5	0.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0	8.9	0.6	3	7.2	0.7	10	16.2	0.7
○ 통신 및 방송기기	546	1.5	8.5	32	-6.8	6.5	94	-26.0	7.0
- 통신기기	500	2.3	7.8	30	-4.2	6.0	85	-26.5	6.4
· 유선통신기기	62	8.1	1.0	5	1.9	1.0	14	0.9	1.0
· 무선통신기기	439	1.5	6.8	25	-5.3	5.1	71	-30.2	5.3
- 방송국용 기기	45	-5.6	0.7	2	-31.1	0.5	9	-20.3	0.6
○ 영상 및 음향기기	178	-1.7	2.8	11	-2.3	2.3	30	-28.8	2.2
- 영상기기	125	-0.2	2.0	7	-7.1	1.5	19	-35.5	1.4
- 음향기기	50	-2.1	0.8	4	3.4	0.7	10	-13.9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33.8	0.1	0	66.2	0.1	1	12.3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80	7.1	12.2	70	-5.3	14.1	182	-2.3	13.6
- 가정용 기기	179	13.1	2.8	15	-3.5	3.1	40	0.7	3.0
- 사무용 기기	6	-15.9	0.1	0	-18.6	0.1	1	-16.9	0.1
- 의료용 기기	90	3.0	1.4	10	0.6	1.9	23	1.8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16	4.2	4.9	29	-9.9	5.9	76	-4.0	5.7
- 전기 장비	189	9.5	3.0	15	-0.9	3.1	42	-3.4	3.1
· 건전지 및 축전지	74	13.4	1.1	6	4.0	1.2	16	-3.3	1.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717	3.2	100.0	241	-0.1	100.0	666	0.8	100.0
○ 전자부품	890	4.6	32.8	76	-0.5	31.7	220	2.3	33.1
- 반도체	645	3.9	23.8	55	0.1	22.9	162	4.9	24.3
- 디스플레이 패널	33	7.6	1.2	3	9.8	1.3	8	1.0	1.2
- 전자관	3	1.4	0.1	0	7.0	0.1	1	-2.6	0.1
- 수동부품	37	18.3	1.3	3	-4.6	1.3	9	-1.9	1.3
- PCB	16	-8.9	0.6	1	-21.0	0.5	3	-20.5	0.5
- 접속부품	153	5.6	5.6	13	0.5	5.6	37	-3.0	5.6
- 기타 전자부품	3	21.8	0.1	0	-58.8	0.1	1	-37.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76	5.7	13.8	33	-6.9	13.6	92	-0.6	13.9
- 컴퓨터	156	6.4	5.7	14	-6.0	5.6	38	2.1	5.7
- 주변기기	220	5.2	8.1	19	-7.4	8.0	55	-2.3	8.2
· 디스플레이장치	18	3.0	0.7	2	-8.3	0.6	4	1.5	0.7
· 프린터(부품포함)	45	0.8	1.7	4	-6.2	1.7	12	3.2	1.8
· 보조기억장치	61	2.3	2.2	5	-20.4	2.1	14	-15.1	2.1
· 저장 매체	47	14.9	1.7	4	-3.8	1.6	11	-2.6	1.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0	5.3	1.8	5	6.1	2.0	14	8.1	2.1
○ 통신 및 방송기기	397	-4.7	14.6	34	-1.7	14.3	95	-3.1	14.2
- 통신기기	364	-4.3	13.4	32	-0.6	13.1	87	-2.0	13.1
· 유선통신기기	191	0.9	7.0	17	-4.2	6.9	44	-4.0	6.6
· 무선통신기기	173	-9.5	6.4	15	3.6	6.2	43	0.3	6.5
- 방송국용 기기	33	-8.6	1.2	3	-12.2	1.2	7	-14.7	1.1
○ 영상 및 음향기기	109	-4.2	4.0	8	-6.6	3.4	24	-8.6	3.5
- 영상기기	50	-3.0	1.9	4	-7.4	1.6	11	-5.3	1.7
- 음향기기	42	-3.8	1.6	4	0.9	1.5	10	-7.3	1.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	-8.5	0.6	1	-26.5	0.4	3	-23.7	0.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45	5.5	34.8	89	4.4	37.0	235	2.5	35.3
- 가정용 기기	133	4.3	4.9	12	2.2	4.9	32	0.5	4.8
- 사무용 기기	12	-4.5	0.4	1	-7.9	0.4	3	-8.7	0.4
- 의료용 기기	257	5.2	9.5	25	7.2	10.6	66	4.4	9.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5	7.5	11.2	29	3.7	12.1	76	3.1	11.4
- 전기 장비	238	4.5	8.8	22	4.2	8.9	59	1.4	8.9
· 건전지 및 축전지	53	7.8	1.9	4	-2.7	1.8	13	-2.3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427	4.7	100.0	410	-5.9	100.0	1,184	-4.6	100.0
○전자부품	961	7.6	17.7	76	-3.3	18.5	209	-9.7	17.7
- 반도체	728	7.1	13.4	57	-3.6	13.9	154	-12.1	13.0
- 디스플레이 패널	32	11.7	0.6	2	-19.1	0.6	7	-15.0	0.6
- 전자관	3	8.8	0.0	0	17.6	0.1	1	-0.8	0.0
- 수동부품	38	21.0	0.7	3	12.3	0.8	10	10.0	0.8
- PCB	21	5.3	0.4	2	-5.0	0.4	5	-5.0	0.4
- 접속부품	133	5.8	2.5	11	-2.2	2.7	32	-1.7	2.7
- 기타 전자부품	6	29.0	0.1	0	1.8	0.1	1	2.9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81	7.4	23.6	95	-5.3	23.2	272	-1.9	23.0
- 컴퓨터	759	12.1	14.0	56	-1.3	13.7	159	1.0	13.5
- 주변기기	521	1.2	9.6	39	-10.6	9.5	113	-5.8	9.5
· 디스플레이장치	88	-0.2	1.6	7	12.2	1.7	21	7.3	1.8
· 프린터(부품포함)	154	-2.0	2.8	12	-2.2	2.9	36	-1.1	3.0
· 보조기억장치	93	-5.6	1.7	5	-42.2	1.3	16	-33.3	1.3
· 저장 매체	113	6.2	2.1	9	-9.9	2.3	25	0.9	2.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4	13.1	1.4	5	-5.0	1.3	16	-2.4	1.3
○통신 및 방송기기	1,261	-2.8	23.2	93	-16.6	22.7	267	-10.7	22.6
- 통신기기	1,148	-2.7	21.2	86	-16.8	21.0	244	-11.0	20.6
· 유선통신기기	505	-1.0	9.3	31	-22.8	7.6	90	-21.7	7.6
· 무선통신기기	643	-3.9	11.9	55	-12.9	13.3	154	-3.4	13.0
- 방송국용 기기	113	-4.3	2.1	7	-14.6	1.8	23	-7.6	1.9
○영상 및 음향기기	353	0.3	6.5	22	4.1	5.3	68	-0.8	5.8
- 영상기기	183	-2.9	3.4	13	18.9	3.1	40	18.9	3.4
- 음향기기	103	-2.8	1.9	7	-0.3	1.7	22	-1.2	1.9
- 기타 영상음향기기	67	16.9	1.2	2	-35.5	0.5	6	-53.8	0.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72	8.6	29.0	124	0.0	30.3	367	0.9	31.0
- 가정용 기기	404	8.9	7.4	30	-4.3	7.2	89	-2.0	7.5
- 사무용 기기	27	4.2	0.5	2	14.2	0.6	7	16.6	0.6
- 의료용 기기	285	9.1	5.3	25	7.9	6.2	71	5.4	6.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2	5.7	5.4	25	-1.0	6.1	69	-1.2	5.9
- 전기 장비	565	9.9	10.4	42	-1.3	10.3	132	1.2	11.1
· 건전지 및 축전지	90	12.2	1.7	7	0.0	1.7	22	4.7	1.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18년			2019년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3,159	1.6	100.0	13,361	-6.1	100.0	35,649	-6.8	100.0
○ 전자부품	81,745	1.9	50.1	6,380	-6.2	47.8	17,423	-7.5	48.9
- 반도체	47,209	4.7	28.9	3,665	-6.2	27.4	10,178	-6.1	28.6
- 디스플레이 패널	9,043	-15.4	5.5	617	-26.5	4.6	1,701	-23.7	4.8
- 전자관	277	5.7	0.2	27	5.3	0.2	65	0.0	0.2
- 수동부품	8,840	12.3	5.4	762	14.9	5.7	2,066	8.9	5.8
- PCB	3,430	18.4	2.1	242	5.5	1.8	632	-9.4	1.8
- 접속부품	12,171	-3.5	7.5	1,006	-5.9	7.5	2,611	-10.7	7.3
- 기타 전자부품	774	1.8	0.5	62	-10.7	0.5	169	-6.3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841	-2.9	9.1	1,302	-1.1	9.7	3,532	-2.3	9.9
- 컴퓨터	977	-1.6	0.6	101	16.0	0.8	258	2.8	0.7
- 주변기기	13,864	-3.0	8.5	1,201	-2.3	9.0	3,274	-2.6	9.2
· 디스플레이장치	846	11.0	0.5	103	25.9	0.8	263	35.2	0.7
· 프린터(부품포함)	10,180	-2.8	6.2	836	-4.4	6.3	2,357	-5.1	6.6
· 보조기억장치	410	-26.7	0.3	47	-16.2	0.3	105	2.6	0.3
· 저장 매체	1,799	-6.3	1.1	161	-1.8	1.2	402	-7.8	1.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28	9.2	0.4	55	2.5	0.4	146	-0.1	0.4
○ 통신 및 방송기기	9,369	-14.8	5.7	668	-20.5	5.0	1,846	-21.2	5.2
- 통신기기	5,787	-18.6	3.5	427	-16.4	3.2	1,164	-21.5	3.3
· 유선통신기기	1,348	-9.6	0.8	127	-18.0	1.0	340	-14.8	1.0
· 무선통신기기	4,439	-21.0	2.7	300	-15.7	2.2	823	-23.9	2.3
- 방송국용 기기	3,582	-7.7	2.2	241	-27.0	1.8	682	-20.6	1.9
○ 영상 및 음향기기	5,803	9.6	3.6	305	-24.1	2.3	904	-21.1	2.5
- 영상기기	2,686	-13.3	1.6	185	-19.4	1.4	517	-16.6	1.4
- 음향기기	530	9.2	0.3	46	-3.0	0.3	114	-5.8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2,588	51.2	1.6	74	-40.7	0.6	273	-32.6	0.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1,400	5.1	31.5	4,706	-3.3	35.2	11,943	-3.0	33.5
- 가정용 기기	10,531	0.8	6.5	1,010	-4.7	7.6	2,419	-3.3	6.8
- 사무용 기기	479	-11.3	0.3	41	0.3	0.3	113	1.5	0.3
- 의료용 기기	6,148	5.6	3.8	576	-2.3	4.3	1,457	-5.4	4.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0,478	7.2	12.6	1,887	-0.2	14.1	4,871	0.8	13.7
- 전기 장비	13,764	6.1	8.4	1,191	-7.3	8.9	3,083	-7.2	8.6
· 건전지 및 축전지	7,138	9.0	4.4	603	-3.3	4.5	1,595	-5.7	4.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4,532	2.1	100.0	12,676	3.5	100.0	38,268	0.2	100.0
○전자부품	41,768	0.6	27.0	3,352	0.1	26.4	9,560	-4.6	25.0
- 반도체	32,349	1.7	20.9	2,607	0.3	20.6	7,414	-3.9	19.4
- 디스플레이 패널	1,664	-7.1	1.1	130	-0.3	1.0	363	-9.5	0.9
- 전자관	118	-26.2	0.1	8	21.4	0.1	24	-8.5	0.1
- 수동부품	1,352	3.0	0.9	115	11.4	0.9	328	4.2	0.9
- PCB	1,400	-13.4	0.9	110	-4.0	0.9	320	-9.5	0.8
- 접속부품	4,390	0.5	2.8	342	-3.5	2.7	989	-8.6	2.6
- 기타 전자부품	494	5.5	0.3	39	-3.8	0.3	121	0.8	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468	1.7	15.2	2,309	3.0	18.2	6,543	2.5	17.1
- 컴퓨터	13,085	1.2	8.5	1,345	-1.1	10.6	3,842	5.2	10.0
- 주변기기	10,383	2.2	6.7	964	9.5	7.6	2,701	-1.1	7.1
· 디스플레이장치	511	-4.9	0.3	47	12.8	0.4	145	5.8	0.4
· 프린터(부품포함)	4,171	-1.6	2.7	363	6.4	2.9	1,073	-1.9	2.8
· 보조기억장치	2,725	9.0	1.8	261	4.1	2.1	701	-2.4	1.8
· 저장 매체	1,625	-1.8	1.1	139	-0.9	1.1	387	-12.2	1.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351	10.0	0.9	154	44.7	1.2	395	15.3	1.0
○통신 및 방송기기	33,641	0.4	21.8	2,094	-9.6	16.5	7,887	-4.9	20.6
- 통신기기	31,189	-0.4	20.2	1,871	-11.2	14.8	7,268	-5.5	19.0
· 유선통신기기	6,536	-1.2	4.2	588	13.7	4.6	1,776	14.4	4.6
· 무선통신기기	24,654	-0.2	16.0	1,283	-19.3	10.1	5,492	-10.5	14.4
- 방송국용 기기	2,452	12.7	1.6	224	6.2	1.8	619	2.0	1.6
○영상 및 음향기기	11,593	-0.2	7.5	893	13.4	7.0	2,802	6.2	7.3
- 영상기기	6,310	-0.4	4.1	596	28.4	4.7	1,747	17.1	4.6
- 음향기기	3,042	11.7	2.0	256	19.4	2.0	768	9.6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2,241	-12.4	1.5	41	-62.7	0.3	287	-35.7	0.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4,062	6.0	28.5	4,028	13.5	31.8	11,476	5.7	30.0
- 가정용 기기	12,772	2.4	8.3	1,167	15.1	9.2	3,249	6.4	8.5
- 사무용 기기	912	-0.5	0.6	81	9.1	0.6	259	-9.7	0.7
- 의료용 기기	6,942	3.2	4.5	697	16.3	5.5	1,936	11.1	5.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925	9.1	6.4	917	4.1	7.2	2,572	2.4	6.7
- 전기 장비	13,512	9.3	8.7	1,165	19.1	9.2	3,459	6.0	9.0
· 건전지 및 축전지	2,081	17.6	1.3	192	21.6	1.5	603	17.5	1.6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6	14,334	6.6	66,618	15.9	1,016	-56.1
	2017	8,829	-38.4	75,141	12.8	614	-39.6
	2018	6,872	-22.2	99,226	32.1	1,344	118.9
	2016.1/4	4,211	45.1	16,916	26.2	418	-48.2
	2/4	3,693	36.9	16,176	19.1	303	-37.4
	3/4	3,160	-16.9	15,681	22.0	150	-74.6
	4/4	3,270	-19.2	17,845	1.3	145	-66.6
	2017.1/4	2,610	-38.0	18,617	10.1	116	-72.2
	2/4	2,043	-44.7	15,715	-2.8	84	-72.3
	3/4	2,018	-36.1	19,113	21.9	98	-34.7
	4/4	2,158	-34.0	21,696	21.6	316	117.9
	2018.1/4	2,042	-21.8	25,635	37.7	244	110.3
	2/4	1,485	-27.3	28,160	79.2	379	351.2
	3/4	1,554	-23.0	27,358	43.1	313	219.4
	4/4	1,791	-17.0	18,073	-16.7	408	29.1
	2019.1/4p	1,628	-20.3	20,666	-19.4	150	-38.5
직접구매 (수입)	2016	44,198	2.2	192,102	37.2	5,153	4.8
	2017	37,898	-14.3	277,273	44.3	8,737	69.6
	2018	53,588	41.4	451,371	62.8	11,238	28.6
	2016.1/4	12,454	9.2	37,280	17.6	1,302	3.8
	2/4	8,907	-15.8	35,107	22.1	996	-2.2
	3/4	10,499	28.8	44,531	52.8	1,093	-6.7
	4/4	12,338	-5.9	75,184	49.2	1,762	19.7
	2017.1/4	7,123	-42.8	57,502	54.2	1,879	44.3
	2/4	6,799	-23.7	56,726	61.6	1,870	87.8
	3/4	10,035	-4.4	55,514	24.7	1,879	71.9
	4/4	13,941	13.0	107,531	43.0	3,109	76.4
	2018.1/4	12,527	75.9	102,167	77.7	2,863	52.4
	2/4	12,543	84.5	98,533	73.7	2,665	42.5
	3/4	11,321	12.8	98,704	77.8	2,665	41.8
	4/4	17,197	23.4	151,967	41.3	3,045	-2.1
	2019.1/4p	13,180	5.2	141,629	38.6	3,107	8.5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18.1월	185.5	155.1	85.0	89.1	118.8	132.3	168.4	176.7	63.7	64.3	125.1	139.5
2월	171.6	144.0	69.1	73.6	85.7	94.1	165.8	176.6	48.0	50.1	104.7	117.3
3월	207.8	175.7	81.2	88.3	104.5	114.2	189.1	202.3	62.2	73.1	132.6	147.8
4월	187.7	158.6	73.3	81.2	99.2	108.4	134.6	144.1	50.6	60.2	133.3	147.8
5월	208.0	176.8	72.7	83.8	99.8	102.2	141.3	156.2	62.1	69.2	126.9	142.2
6월	214.9	184.8	74.6	89.0	102.8	105.7	187.2	213.5	56.7	63.8	147.3	164.8
7월	197.8	170.8	88.7	106.5	119.6	123.3	146.0	168.0	59.3	65.8	130.0	145.3
8월	218.7	190.0	107.6	127.1	118.4	121.8	176.0	204.5	58.3	64.6	155.1	174.0
9월	244.6	215.1	93.6	109.2	104.4	107.9	89.1	101.9	52.2	58.6	143.0	161.1
10월	227.1	208.8	89.8	104.6	116.7	121.9	77.1	88.3	67.6	73.8	170.1	193.2
11월	207.7	194.2	37.4	44.1	112.1	117.4	86.1	99.8	83.3	90.1	148.8	169.0
12월	171.7	162.6	36.9	44.0	95.9	101.2	87.5	102.7	73.6	79.1	136.9	155.6
19.1월	145.1	152.2	36.5	44.3	103.9	109.7	64.2	75.4	72.7	79.0	124.4	141.7
2월	132.7	146.5	29.8	37.2	87.1	91.8	54.3	65.9	60.3	65.3	107.2	119.2
3월	175.5	202.2	31.3	39.3	99.9	105.9	69.2	84.6	67.2	77.6	139.4	154.8
4월	164.3	201.6	31.2	39.3	101.8	109.9	55.0	68.4	71.3	81.7	134.0	153.3
5월	148.5	186.8	30.4	38.9	99.7	107.9	59.8	75.0	62.9	72.1	142.8	163.5
6월	165.5	215.3	31.6	41.1	95.6	103.9	42.8	54.4	62.4	71.5	128.6	147.5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18.1월	112.0	113.2	106.2	124.0	107.5	116.8	194.4	201.3	132.9	141.5	128.4	124.3
2월	100.5	101.6	87.8	104.8	84.6	94.2	133.9	138.5	90.3	96.1	113.6	110.8
3월	115.6	116.8	113.7	138.8	98.1	106.9	160.0	161.5	106.8	115.1	129.2	126.0
4월	108.7	109.7	119.6	147.8	90.1	98.1	149.4	151.4	95.5	109.0	133.8	129.4
5월	105.3	106.2	142.4	183.1	93.7	102.2	146.0	148.3	102.6	117.1	121.0	116.7
6월	109.9	113.8	136.8	181.3	88.8	97.2	137.4	143.2	95.4	109.0	126.7	123.7
7월	118.8	122.9	127.6	171.1	98.3	106.8	143.6	148.7	106.2	129.3	129.1	126.3
8월	116.9	120.9	125.6	166.7	99.4	108.4	133.5	136.0	99.2	120.2	119.6	116.7
9월	111.7	118.2	87.0	114.6	92.2	100.7	108.4	109.9	91.8	111.2	119.2	116.9
10월	127.0	136.1	93.9	125.7	107.1	117.5	126.1	126.2	169.4	205.6	133.6	131.1
11월	132.4	144.2	76.0	99.1	96.2	105.7	115.0	116.5	156.3	172.3	118.8	117.0
12월	124.3	136.9	49.1	60.7	97.5	107.3	139.8	144.4	127.3	138.4	121.7	119.9
19.1월	118.3	134.1	52.4	77.4	95.6	105.5	169.4	169.7	152.6	165.6	111.9	109.8
2월	98.8	114.8	41.6	54.3	70.9	78.0	114.0	117.7	99.1	108.7	95.2	93.3
3월	124.2	145.7	46.7	50.8	95.6	105.0	136.2	139.4	137.7	149.5	116.5	114.4
4월	128.4	153.4	47.0	50.8	91.2	100.4	127.1	131.3	137.1	154.8	127.7	125.7
5월	138.1	170.7	40.6	43.9	88.2	97.5	108.1	110.8	142.3	160.9	113.2	111.1
6월	121.9	152.3	24.0	25.7	89.5	99.0	99.8	103.9	124.3	140.6	111.7	110.3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과제 책임자 : 김현중
- 참여 연구원 : 강희일, 조성선, 정경찬, 최재원, 최규선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30, 팩스 : (042) 612-8209